

자율형사립고설립 반대! 고교평준화해체 반대!

지난 7월 9일(목) 12시 30분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전국 지부지회 활동가 및 회원들이 모여 자율형사립고설립반대! 고교평준화해체반대! 학부모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굵은 빗방울이 쏟아지는 속에서도 목포, 나주, 광주, 포항, 울산, 구리남양주, 인천 양주, 파주, 천안, 김포, 고양, 남부, 성남, 동북부지회에서 60여 명의 활동가들은 비를 맞으며 우리의 목소리를 모아냈다. 정진후 전교조위원장과 김옥성 교육을 생각하는시민모임대표의 연대사와 아이들은 입시지옥 학부모는 등골 휘는, 자율형사립고설립반대! 고교평준화해체반대!의 현수막으로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최정화 서울지부장과 오승주 전남지부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비싼 수업료를 부담하는 부유층 자녀들이 입학하여 특권적인 ‘입시교육’을 누릴 수 있는 학교, 대다수 서민과 지방의 학생들이



또 성과 채우기에만 급급하여 기준미달 학교조차 ‘자율형사립고’로 지정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이렇게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정책의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과 교육전반에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기자회견 중에 경찰은 구호를 외치는 불법집회를 하고 있다면서 3번이나 해산하라는 경고방송을 하였지만, 우리 회원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곳곳이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교과부 면담을 위해 이동하려고 했으나 경찰이 막아서면서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하였다. 3시간 동안 비를 맞으면서도 곳곳하게 자리를 지켜낸 우리 회원들은 ‘지역에 돌아가 주변 학부모들에게 자율형사립고의 폐해를 더 많

이 알려내어 우리의 힘으로 자사고설립을 막아내자’고 결의를 하였다.

은 배제하고 차별하는 자율형사립고는 ‘차별교육’을 포장하기 위한 ‘거짓 자율’이라고 비판했다.

이 알려내어 우리의 힘으로 자사고설립을 막아내자’고 결의를 하였다.

창립20주년기념 여름연수 및 대동한마당

“위기의 교육을, 희망의 교육으로!”

전국의 회원이 모두 모여 우리회 20년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고 격려하며 앞으로의 활동을 다짐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지부지회 회원들의 참여로 즐겁고, 알찬 자리로 만들어가요~

아이들은 별도로 서울역사문화기행을 진행합니다. 가족단위로 함께 오세요

- 일시 : 2009년 8월 21일~22일(금, 토)
- 장소 : 팀수양관(서울 불광동)
- 참가비 : 어른 25,000원 아이 15,000원
(서울역사문화기행비 25,000원 별도)
- 프로그램은 홈페이지 탑재
- 문의 : 각 지부지회

이달의 보도자료

전문은 홈페이지 성명서/보도자료 참조

- | | |
|--|---|
| 7.02 [성명서] 짚고짚고, 오락가락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 대한 입장 | 7.15 [공동기자회견문] 자율형사립고 정책은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졸속정책이다 |
| 7.09 [기자회견문] 자율형사립고설립반대! 고교평준화해체반대! 전국학부모 기자회견 | 7.15 [공동기자회견문] 자율형사립고 정책은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졸속정책이다 |
| 7.10 [보도자료] 국회차원의 심야학원교습금지 법안 즉각 추진 촉구 기자회견 | 7.21 [보도자료] ‘제한적 주민직선제’ 서명운동과 관련한 질의서 발송 안내 및 참교육학부모회 입장 발표 |
| 7.10 [연대기자회견문] 자사고설립중단! 밀실논의중단! 교육단체대표 릴레이 단식농성돌입 기자회견 | 7.24 [공동기자회견문] 포장은 ‘미래형교육과정’, 내용은 ‘MB형 입시경쟁교육과정’ |
| 7.13 [공동기자회견문] 심야 학원 교습 금지법은 지금 당장 법제화되어야 합니다 | 7.24 [공동기자회견문] 무책임한 사학 운영자에게 특혜 주는 ‘부실사학 퇴출정책’ 중단하라 |
| | 7.29 [성명서] 준비가 부족한 입학사정관제 확대는 오히려 우리 교육문제를 심화시킬 뿐이다 |

이달의 주요기사

- | | |
|----------------------------------|--------------------------------|
| 02 아름다운 학교문화 만들기
방과 후 학교 | 06 기획특집
민주주의는 죽었다 |
| 04 교육자치
무상급식실현은 이제 대세다 | 12 지부·지회 소모임
김포지회 ‘문화나누기’ |
| 05 정책
2010년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거에 대해 | 13 언론정보출판
의료민영화추진을 무조건 반대한다 |

1회 불법천조금 없는 학교문화 만들기
2회 새로운 학교문화 만들기 - 가정방문, 편지보내기
3회 학년말 책거리 행사와 함께 스승의 날을 치루자
4회 새로운 수학여행과 현장학습의 모색
5회 학교급식은 교육이며 생활이다
6회 자원봉사가 나아갈 길

7회 운동회
8회 모범적인 학교 도서관 운영
9회 모범적인 학급운영과 동아리 활동
10회 학부모의 학교참여
11회 학교를 일면 자녀 교육이 보인다
12회 학교운영위원회란 무엇인가?

13회 학부모 학교참여 어떻게 할 것인가?
14회 급훈
15회 학교급식
16회 교사와 학부모의 소통
17회 체험학습
18회 바람직한 대학진학의 길

19회 한글날 특집
20회 지자체의 학교지원
21회 바람직한 청소년 인성지도
22회 다양한 겨울방학 지내기
23회 일제고사가 뭐길래?
24회 학교운영위원회

25회 학생자치활동
26회 변화하는 스승의 날
27회 농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
28회 학교 안의 먹을거리
29회 방과 후 학교

자발적 복종에서 자발적 거부로



“모든 사람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간섭받지 않고 의견을 가질 자유와 모든 매체를 통하여 국경에 관계없이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고,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이 아름다운 문장의 출처는 ‘세계인권선언 제19조’에 기록되어 있다. 지구상 모든 사람이라면, 사회적 소수자일지라도 자신의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가질 수 있다는 말이다. 아니 사회적 소수자일수록 자신의 의견과 표현을 위한 자유가 주어져야 할 것이다.

한국사회, 그 중 청소년들의 삶과 연관된 환경을 들여다 보자. 학생이라는 이름으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미숙하다는 청소년이라는 이름으로 자신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사회적 권리를 누리고 있는가? 아니 그보다 먼저 자신들이 가져야 할 권리에 대한 이해조차 없는 것은 아닌가? 자신이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모르는 일은 슬픈 일이다. 대한민국의 10대 대부분이 다니고 있는 학교라는 공간에는 아주 오래 전부터 변하지 않고 있는 ‘학생생활규정’이라는 제도가 있다. 이 학생생활규정이라는 것에는 머리카락의 길이, 교복의 길이, 양말의 색깔, 구두와 가방의 모양 등 대부분 그들을 가두기 위한 제한만이 요구되고 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직도 많은 학생들의 의식엔 그 규정들에 대한 자발적 복종만이 건재하게 살아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때문에 우리의 현실에서는 세계인권선언이나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 등은 그저 공부하는 어른들의 글쓰기에서만 가능한 일인 것인가? 뿌리내린 ‘자발적 복종’에 대한 ‘위대한 거부’는 불가능한 것인가란 의문을 가지게 한다. 하지만 희망은 존재했고 이러한 희망을 구체적으로 가져다 둔 시점은 90년 후반부터라 할 수 있다. 2000년 10대 커뮤니티 포털사이트 하이두넷을 중심으로 시작된 ‘두발제한반대서명운동’은 단순히 머리카락의 길이를 위한 외침이 아니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학교에서 내려준 규칙과 교사의 지시는 절대로 거부하지 말아야 하는 불문율이었다.

두발제한반대서명운동의 시작은 지금까지 반드시 지켜야만 했을 것 같은 불문율에 대한 자발적 거부이다. 이는 단순한 물리적 현상에 거부가 아닌 정당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근본적인 거부이다. 학생이 공부를 해야지, 머리를 길러서 뭐하려고 하며 하나의 반항적 사건으로 치부해서 될 일이 아니었다. 늘 강요당해 온 자발적 복종의 문화는 청소년들의 삶에 그대로 반영된다. 청소년들이 사회적 관

심, 정치적 관심에 무관심한 것은 정치적, 사회적 무능아기에 때문이 아니라 늘 강요당해 온 자발적 복종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었고, 이에 대한 거부의 시작은 청소년의 삶을 스스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 사건이다.

2005년 5월 서울 광화문 입시경쟁교육에 희생된 동료학생들을 추모하고, 두발자유화를 위해 모인 몇 백 명의 청소년 집단을 보호(?)하고 지도(?)하기 위한 6천여 명의 경찰들과 7백여 명의 교사들이 동원되었던 광화문 모임은 학생들의 권리표현과 참여를 위한 자발적 집단행동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형태의 움직임은 청소년들의 문화적 표현과 행동에서도 자주 나타나고 있다. ‘즐겁고 자유로운 표현과 소통과 전달’이라는 본질을 담고 있는 문화의 특성상 청소년들의 자연스러운 참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특정한 의도와 이슈를 담아내는 활동보다 더 광범위하고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스스로 만들어 가는 청소년축제기

...

네가 진짜 원하는게 뭐야?

말을 해봐!

한번 놀아 볼래?

우리같이 노을자!

...

확단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강북청소년문화축제 기획단 ‘노을자’는 주체적 문화 만들기를 위한 하나의 청소년문화운동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늘 어른들이 만들어 준 마당에서만 놀아야 했던 청소년들이 그들의 일상적 삶의 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지역사회 안에서 그들만의 주체적인 선택과 표현을 하기 시작했고, 12년 간의 시간을 거치면서 입시로 점차 위축되고 있는 문화동아리의 활동에 스스로 힘을 주기도 하고, 기성세대와 청소년들의 관계를 연결해주는 새로운 ‘led-p’라는 청년문화기획단이 생겨나기도 했다. 이들은 중학교 때부터 했던 노을자 활동을 근거로 단순히 즐기는 축제에서 확대되어 지역과 세대를 연결하는 매개로서의 축제가 가능함을 제시해주는 역할을 해냈다. 그리고 삶의 선택과 관련한 개인적인 아이들의 변화도 있다.

현중이는 학교라는 공간 안에서는 무기력과 열등감으로 중학교를 보내고 있다가 축제 기획단 활동을 하며, 삶의 자신감을 얻었다. 현중이의 담임을 맡고 있었던 교사는 학교 밖에서의 자신감 있는 현중이의 모습을 보며 그가 자신의 가장 하고 싶은 일을 학교에서 찾을 수 없었다가 다른 활동을 통해 하고 싶은 일을 경험하고, 그 과정에서 얻었던 자신감들이 그의 웃음을 되찾게 해준 것 같다고 했다. 현중이의 경우처럼 타인과의 의사소통에도 적극적이지 못하고, 삶의 자신감과 동기가 없는 많은 청소년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삶을 회복하고 찾아갈 수 있는 일상적인 기회가 필요하다. 지금 현중이는 청소년문화공간 ‘폐페’라는 작은 공

간을 만들어 지역의 자기또래 친구들과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청소년들은 결국 학교 안에서, 지역사회 안에서 스스로 하고 싶은 일을 찾아가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지지를 받으며, 또 다른 삶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한 예로 강북지역에서는 10년 간 진행된 지역청소년문화 축제에서 성과로 강북청소년문화존을 2년째 운영하고 있다. 밴드, 댄스와 같은 동아리 영역을 포함하여 ‘무언가’ 하고 싶은 청소년들이 함께 지역사회에 ‘동네 말걸기’를 하고 있다.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지역 안에서 다른 세대를 청소년들의 문화로 말을 걸고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 즉, 타인과의 관계 형성을 일상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이것은 청소년만이 좋은 경험하고 즐겁게 노는 것에서 보다는 지역사회 내에서 다른 세대와 소통함으로써 삶을 배워나가는 주체적인 성장이라 할 수 있다.

사회 또는 기성세대에게 무조건적인 적대적 관계 즉 ‘어른들하고는 안 논다’, ‘어른들은 다 똑같다’와 같은 일방적 판단으로 스스로의 벽을 만드는 경우도 있다. 그렇기에 청소년들의 행복한 삶의 회복을 위한 ‘운동이 필요한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운동이란 기성세대가 만들어온 굴곡 많은 역사 속에서 진행되어왔던 이데올로기적 운동 개념과는 다를 수 있다. 즉 청소년들의 삶에 대한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변화로서의 의미를 담고 있다. 주어진 환경에서의 순응 또는 회피라는 극단적 선택으로서가 아닌 자신들의 삶을, 자신들의 삶의 환경을 제대로 인식하고, 자신들의 욕구와 의지를 표현하고, 사회 또는 기성세대가 바로 보는 시각으로서 자신을 규정하는 것이 아닌 자신들의 시각과 실천으로 스스로의 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는 멈추지 않는 물결과 같은 사회적 운동이 필요한 시기이다. 이는 권리와 책임이 공존하는 그리고 청소년만이 아닌 청소년과 기성세대, 청소년과 사회가 함께 소통하며 공존할 수 있는 공동의 과정으로서의 의미를 뜻한다. 거대한 담론형성이나 소수의 파격적인 실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상적 삶의 변화를 위한 소박하지만 지속적인 인식과 실천이다. 교사가 학생을 존중할 수 있는 일상, 학생이 교사를 존중할 수 있는 일상과 같은 생활운동이 필요하며, 이는 특정세대의 노력이 아닌 공동의 노력이 있어야 가능한 일일 것이다. 그렇기에 곳곳에서 드러나는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야 한다. 그들의 패턴과 생각을 분석하고, 파악하기보다는 이해와 존중을 위한 진정한 소통을 근거로 한 노력이 먼저 필요한 것이다. ‘네가 진짜 원하는 게 뭐야?’를 던지며, ‘그래 한번 놀아봐라!’라는 ‘일방적 배움’으로서가 아닌 서로의 인식과 행동이 행복하게 충돌할 수 있는 실천이 필요한 것이다. 그것은 자신의 생각과 의지와 희망을 표현하고, 그 표현들이 서로 소통하는 과정에서 시작된다. 우리가 원하는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요구함이 아닌 서로가 즐거운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일 자체가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려 본다. 그것이 학교내에서건, 밖에서건 말이다.

심한기(품청소년공동체대표)

나를 키워준 신나는 학교

나는 올해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ㄷ외고에 입학했다. 생긴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고 그렇게 알아주는 명문 외고도 아니다. 그래도 내가 하려고 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오늘도 어렵지만 즐거운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 더구나 방학을 하자마자 보충수업에 들어가기는 했으나 한 열흘만 지나면 일주일간의 진짜 여름방학(어쩌면 아무리 날리라고 하지만 내게도 마지막 방학이 될지도 모르느)이 나를 기다리고 있으니... 오! 예~

나는 벌써 이번 여름방학 동안 할 일에 대해 꼼꼼히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친구랑 셋(더 많이 같이 갈 걸로 생각했는데 암만해도 고등학교에 들어가고 나니까 분위기가 달라지는 걸 느끼겠대)이서 자전거를 이용하여 5박6일 동안에 충청권을 여행하며 돌아볼 곳과 즐길 곳 그리고 잠잘 곳을 다 정하여 두고 있는 것이다. 사실 이렇게 치밀한 일정을 짜게 된 것은 엄마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출발 자체를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무리 셋이서 휴대전화를 가지고 다닌다고는 하지만, 그리고 단 한 차례라도 적어도 셋중에 한 사람에게는 연락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음부터 '맘대로 방학'은 끝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몇 차례 하다 보니 치밀한 계획을 세운다는 건 고대로 실천하지 못할 망정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된다는 점을 알게 되어 이제는 요구하지도 않는 매끼 메뉴까지 미리 계획하게 되었다. 아,

그리고 중고에다 수리까지도 해야 하지만 자전거 두 대도 벌써 00아빠에게 기증을 받아 놓아 준비가 다 끝난 셈이다. 나는 원래 가지고 있었으니까. (00도 이번에 함께 가지는 못한다.)

그전부터도 어느 정도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이제와 생각해 보면 내가 언제나 이렇게 신나고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이유가 있다. 초등학교는 물론이고 중학교 때도 거의 학원조차 다니지 않던 나는 외고 진학을 앞두고는 6개월 동안 학원을 다니며 죽어라 공부했다.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학원이 끝나고도 거의 새벽 한시나 두시까지 공부했었다. 방학 때는 말할 것도 없고 평소에도 별별 일을 다 해본 덕분이 아닌가 생각된다.

특별전만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박물관, 미술관, 체험학교(그 여러가지 중에서도 한때 도자기에 빠져 내 작품(?)도 몇 개 지금 내 방과 우리 집 식탁에 놓여 있다), 연극, 영화, 뮤지컬, 도서관을 드나들게 되었다. 거기다 피아노, 미술, 태권도는 물론이고 내가 졸라서 배우게 된 검도 그 중 어느 것에도 뛰어난 실력을 발휘하지는 못했지만, 난 아직도 시간이 나면 그리고 마음에 생각나면 피아노를 즐기고 그림을 그린다.

공부도 최상위권은 아니지만 몇 과목을 빼고는 그래도 상위권이라고 할 수 있다. 내가 외고로 진학하게 된 동기도

그렇지만 용케 진학을 하게 된 것도 그 동안 여러 가지 체험과 경험을 통하여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영어권 영화의 대사를 번역하여 자막을 넣는 일을 찾아내게 되었고, 그러려면 무엇을 공부해야 하는지 대학을 어느 과로 진학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엄마나 아빠가 늘 하는 이야기지만 그 희망이 언제 어떻게 방향을 바꿀지 모른다. 사실은 지금까지도 여러 차례 바뀌어왔다. 그래도 어쨌거나 나는 방향과 목표가 정해져 있으니 학교생활과 일상이 그렇게 고달프거나 힘들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대학진학을 위한 준비를 함에 있어서도 내가 집중하여야 할 과목과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과목을 거의 알고 있으므로 중간고사나 학기말고사에서 는 물론이고 모의고사 때도 친구들보다는 좀 여유가 있는 것 같아 다행이다. 사실 부모님이 날 이토록 자유롭게 풀어 놓을 수 있었던 데는 삼촌 할아버지와 그 딸인 언니의 영향이 컸다. 자주 만나지는 못하였지만 그 언니는 정말 너무나도 자유롭게 학교생활과 공부를 하면서도 언제나 신나게 살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지금은 외국으로 유학까지 나가 있다니 정말 부럽다. 나도 거기까지 몰라도 아무튼 즐거운 자전거여행이 기다리고 있으니 신난다.

한소록(ㄷ외고1학년)

학원에서 벗어나기

“오늘 놀 수 있어?” “아니, 안 돼.” “왜?” “학원 가야 돼.” 우리 주변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대화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학생들 중 집중팔구가 학원에 다닌다. 참 안타까운 일이다.

물론 정말 학원에 다녀야 하는 친구도 있고 자신이 다니고 싶어서 다니는 친구도 분명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은 부모의 교육열에 떠밀려서 가는 친구들이 더 많다.

공부를 더 잘하고 성적을 끌어올리기 위해 다니는 학원이지만 정작 학원에 다니는 친구들에게 학원 다니면 성적이 더 오르느냐는 질문을 던지면 대부분이 아니라고 답한다. 그렇다면 학원을 다니는 시간에 다른 곳으로 눈을 돌려 취미활동도 하고, 여행도 다녀보고 하는 등 개인의 여가시간을 가지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는 말이 된다. 물론 나의 주장에 “학원에 다니지 않으면 독학으로 공부를 해야 하는데,

난 독학으로 지금보다 공부를 더 잘할 자신이 없어. 독학은 실력이 있는 학생들이 하는 거야”라고 반박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학원에서 시켜서 하는 공부에 익숙해져서 독학이 자신이 없는 것에 대한 변명이다. 누구든 학원을 다니지 않고도 공부를 잘할 수 있다. 다만 쉽지 않을 뿐이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학원을 다니지 않으면 좋은 점을 말해보겠다. (물론 필자 역시 학원을 다니지 않는다.) 우선 앞에서 말했듯이 공부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다. 예를 들면 나는 야구팬인데, 야구연습을 하면서 실력을 기를 수도 있고, 실시간 중계를 보는 등 취미에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 둘째로는, 자신이 공부하고 싶을 때 공부할 수 있다. 분명히 자신이 공부하기 좋은 컨디션 좋은 날과 정말 공부하기 싫은 날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학원에 다니면 두 가지 경우 모두 공부를 해야 한다. 그렇다면 컨디션이 좋은 날에는 공부하는 내용도 머

리에 쑥쑥 들어오지만, 그렇지 않다면 단 10분조차 집중하기가 힘들다. 그런데 학원을 다니지 않으면 집중이 잘 되는 날에만 공부를 할 수 있고 효율도 오른다. 셋째는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줄어든다. 학원에 다니면 상당한 양의 숙제가 주어지지만 그렇지 않다면 복습도 자신이 원하는 만큼만 할 수 있다. 또한 주변에서 공부하라고 해서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닌 스스로 공부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줄어들 수 있다.

필자가 적어본 장점은 이 정도이지만 다른 장점도 있을 것이다. 단점도 있겠지만 그래도 학원을 다니며 고생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한다. 이번 한 학기라도 학원을 다니지 않는 것과 다니는 동안의 성적을 비교해 본다면 어떨까? 잠깐만이라도 학원에서 벗어나서 다른 공부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황범식(구갈중3학년)

품청소년공동체 www.pumdongi.net

1992년 6월부터 살아가고 있습니다.

품은 따뜻한 사람을 만나면 따뜻한 품이 되고,

가치 있는 사람을 만나면 가치 있는 품이 되고,

아이들을 만나면 아이들의 품이 되고,

청년을 만나면 청년의 품이 되고,

변화와 혁명을 꿈꾸는 자를 만나면 변화와 혁명을 꿈꾸는 품이 되고,

꿈꾸는 자를 만나면 꿈꾸는 품이 됩니다.

품은 세상의 모든 아이들과 청년들이 이 땅에서 품어야 할 소박한 꿈을 품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해체시킬 수는 없지만,

우리의 아이들, 청년들이 자기 언어와 문화를 품으며

세상에 말 걸고, 소중한 소통을 이뤄내기를 희망합니다.

아이들과 청년들이 스스로를 흔들며 생긴 올림의 힘으로

세상에 변화를 시도하기를 희망합니다.

품은...

품은 만큼 품이 됩니다.

“학부모부담 공교육비 경감하는 무상급식실현은 이제 대세다”

7월 10일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제2회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였으나 전 국민의 간절한 염원이었던 무상급식예산을 전액 삭감하였다. 도서벽지, 농산어촌, 300인 이하 소규모 초등학교에 지원될 무상급식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국민들의 목소리와 요구에 부응하기보다 김상곤 교육감에 대한 발목잡기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

의무교육은 무상교육이라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의무교육인 초·중학교에서 학교예산 중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률이 40%~50%를 차지한다. 막대한 사교육비에 가려 학부모가 부담하는 공교육비는 공론화 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지만 서민 경제가 어려워져 학부모들에겐 사교육비, 공교육비 따질 것 없이 모두 경감 받아야 숨통이 트일 판국이다. 또한 올해 들어 전국의 지자체는 의무교육에서 무상급식 지원이 대세이기도 하다. 전남, 경남, 충남에서도 단계별로 무상급식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내고 있으며 이제 무상급식은 전국적으로 거스를 수 없는 큰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음에도 경기도 교육위원들은 초등 무상급식의 첫발을 내딛는 것부터 이를 무산시키고 있다. 더욱이 이번 경기도교육청의 무상급식 예산은 읍면단위의 300명 미만의 농산어촌 초등학교에 우선 지원하겠다는 예산을 삭감했다니 우리 학부모들은 더욱 개탄할 뿐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무상급식지역은 성남시(초3~6학년), 과천시(초1~6학년), 포천시(150명 이하)에서는 51,160명에게 186억 원을 지원하여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경남교육청은 도서벽지 및 100인 이하 초·중학교에 대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8개 지자체에서 107개교에 95억 원을 지원하여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충남교육청은 현재 전체 432개 초등학교 중 면단위이하 305개 학교에 연간 129억9500만원을 들여 무료급식을 실시하고 있

지역	무상급식 현황
남해군(18), 하동군(16), 의령군(9), 함천군(17)	초·중·고 무상급식
거창군(12), 함안군(12)	초·중학교 무상급식
고성군(5), 창녕군(8)	초등학교 무상급식
김해시(10)	500인 이하 초등학교 무상급식
충청남도	305개 초등학교 무상급식

다고 한다.

한 가정에 평균 두 명의 자녀 급식비는 월 10만 원 정도이다. 사교육비에 쪼들린 가정 경제 속에서 매월 어김없이 납부해야 하는 급식비 고지서는 학부모에게 큰 부담일 뿐이다. 그리고 학교는 급식비가 마납되면 독축장을 아이 편에 보낸다. 아이는 급식비 미납 때문에 자주 불려나간다. 구김살 없이 다녀야 할 초등학교 아이를 마음에 상처로 학교가 싫어지

각국 무상급식 사례

국가	무상급식 현황
유럽	60년대 후반부터 점진적 확대 핀란드,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고등학교까지 완전 무료, 친환경 식재료 사용 * 유럽, 미, 일은 40,50년 전부터 국가의 의무
미국	연방빈곤지표 130% 미만 - 무료급식(49.5%) 130~185% - 할인 급식(9.%) 185% 이상 - 실비 가격 총 무료 비율 59%(2004년)
일본	운영비, 시설비 정부 부담, 학부모는 식재료비만 부담
한국	무상급식 비율 9.7%

(자료출처: 안전한학교급식을위한국민운동본부)

는 것을 교육위원들은 아무런 책임감 없이 외면했다.

학교급식 도입 취지가 성장기 아이들의 건강을 담보하기 위함이라면 요즘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고 있다. 무서운 식중독사고로부터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안전하게 지키자며 개정한 학교급식법도 한나라당에 의하여 위탁급식으로 후퇴할 위기에 놓여 있고 초등학생만이라도 우선 무상급식을 실시하자고 해도 교육적 의미는 완전 상실한채 한나라당다운 정치색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 시점에서 한나라당은 학교급식에 대한 교육적 목적을 다시금 새겨 아이들에게 맛있고 행복한 점심을 제공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전은자(교육자치위원장)

정규 6교시에 수학·국어·영어 보충을 해야 하는 아이들

요즘 이명박 정부가 부진아 제로프랜을 추진하느라 학교가 난리가 났다. 이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부진아 지도를 위한 돈은 수시로 내려오고 있으며, 부진아지도강사를 학기 중에 채용하는가 하면, 영어부진아 지도를 학기말에 갑자기 하라고 한다. 그래서 지난 3월 진단평가 성적을 기준으로 영어부진아 지도가 시작되었다. 그런데 이번 시도학력고사에서는 부진아가 아닌데 진단평가에서 60점 이하라 대상이 된 학생이 있는가 하면, 이번 시학력고사 시험에는 영어부진아가 되었으나, 3월 진단평가에서는 대상이 아니어서 제외된 아이도 있다. 학교도 교사도 부진아 지도의 대 혼란이다. 왜냐하면 무조건 해야 하기 때문이다.

학교의 혼란보다 더 큰 문제는 수학부진아가 국어부진아이고 영어부진아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우리 반의 6학년인 한 아이는 6교시가 끝난 이후 이리저리 불려 다니느라 정신이 없다. 어느 요일에 어디로 가야하는지 헷갈릴 뿐만 아니라 도망가기 바쁘다. 왜 도망갔느냐 혼을 내려고 부르면 갖가지 핑계를 만든다. 이번에 새로 시작한 영어부진아 지도 시간과 수학부진아 지도 시간이 겹쳐 어디로 가야하고 묻기도 한다. 여름방학을 앞두고 부진아학습 '오르미'를 안 해도 되냐고 자꾸 물어본다. "아니! 방학 때도 해야 된단다!" "안 되는데! 축구부 합숙훈련 가야 하는데!"라며 걱정스러운 표정이다. 이 아이에게 수학, 영어가 더 필요한 것일까? 축구부 훈련이 더 필요한 것일까? 공부하기 싫어 부진아가 된 아이들을 학교에 9시간이나 수업을 받게 하는

이명박식 부진아 지도방안은 교육을 무슨 공사하듯이 밀어붙이는 꼴이다.

각각의 학교와 교실에는 적게는 1~2명에서 많게는 5~6명씩 학습부진아가 있다. 누구나 공부를 잘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학년의 최소한의 교육내용을 이수하고 성취해야 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시험을 보고 60점 이하를 무조건 부진아로 판별하는 것은 너무 획일적인 판단기준이다. 부진아 판별은 그 교육과정의 기준을 제일 잘 알고 있으며, 아이의 학업 수행과정을 알고 있는 담당 교사가 해야 하는 것이다. 물론 시험성적도 고려해야 할 기준 자료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무조건 시험성적을 기준으로 판별하는 것이 정확한 기준일 수 없다. 시험 볼 당시 몸의 상태가 안 좋아서 시험을 잘못 볼 수도 있으며, 평소 실력은 높으나 시험불안증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부진아 지도의 운영을 방과 후에 하는 방식에서 정규수업시간으로 바뀌어야 한다. 예를 들어 1, 2교시에 부진아는 부진아 지도를 받는 시간으로 하고, 정규시간은 국어나 수학 또는 영어시간으로 배치하면 부진아가 9교시를 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부진아는 못 알아듣는 정규시간을 다 견디어내고 다시 보충수업까지 또 견디어야 하는 지옥 같은 학교생활을 하게 만드는 것은 어른들의 학대이다.

공부를 모두 잘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최소 기준의 학업

성취가 필요하다. 일상생활을 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 최소 기준의 학업성취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자. 죄인 취급하지 말고!

최선정(인천일신초등학교교사)

1 일기 1

방학이 방학 같아야 방학이지

2009년 1월 00 일

나는 방학을 해서 좋을 줄 알았지 그렇게 힘들 줄 몰랐다. 나는 학원에서 시험을 잘 봐서 특반으로 올라갔다. 그런데 특반은 매일매일 가야 되고 3시부터 밤 9시까지 하는 것이다.

나는 높은 반에 올라왔으니 중2꺼도 배우라는 것이다.

나는머리가 터질 것 같다.

평일과 다름없는 방학 그리고 방학숙제까지 있으니...

설 틈이 없다.

인천 부곡초6학년 박진규

2010년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거와 ‘제한적 직선제’ 논란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한 일부 공무원들의 집단행동

최근 전국교육위원협의회(의장 임갑섭 서울시교육위원협의회 의장)와 특정 교원단체가 일선 학교장들을 앞세워 국가공무원법에 66조 집단행동금지 조항을 위반하는 행동을 과감하게 전개하고 있다. 이들은 최근 ‘올바른 교육자치와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1000만인 서명운동’을 선포하고 시도교육청을 통해 일선 학교에 1000만인 서명운동 협조공문을 발송하여 학부모와 교직원의 서명운동을 독려하고 있다.

이들이서명운동을 통해 주장하고자 하는내용은다음과같다.

◆ 교육감 및 교육위원의 선거는 주민직선제 아닌 학부모와 교직원에게만 선거권을주는 ‘제한적 직선제’로 하라

◆ 교육위원은 교육전문가로 구성하라

◆ 교육재정 GDP대비 6%로 확대하라

위 3가지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지방교육자치법’(주장 1, 2번 해당)과 ‘교육세법’(주장 3번 해당)을 개정하라는 주장이다. 언뜻 보기에는 그럴듯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뜯어보면 추하케도 자신들이 기득권 지키기에 교육재정확보 요구사항을 포장용으로 끼워넣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장하는내용의 핵심은 다음선거에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리하게 지켜갈 수 있게 국민들의 기본권인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하자는 것이다. 우리회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자 하는 그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않을 것이며 자신들의 이익 쟁기기에 급급한 일선 교장단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 전국교육위원협의회와 특정 교원단체, 일선 학교장들의 주장과 집단행동일지

1. 전국교육위원협의회 활동일지

○전국교육위원협의회 의장단 회의에서 위 3가지 요구사항을 내건 1000만인 서명운동결의

○6월 29일 몇몇 일간지에 1000만인 서명운동관련 의견광고 게재(전국교육위원협의회, 한국교총, 전교조 명의의광고, 이후 전교조는 조직의 공식 입장이 아닌 사향이 광고의 후원단체로 명기된 것에 대해 항의하고 전교로 명의를 삭제해 줄 것을요청했다는 공식 입장을 밝힘)

○시도교육청에 일선 학교공문 발송 요청

2. 시도교육청과 일선 학교에서의 교장단 집단행동일지

○서울: 지난 6일 협의회의 서명운동 독려 안내문 서울시교육청 내부 게시판에 게시. 이후 서울시의 일부 학교에서는 학부모들이 학부모, 교직원의 서명을 받으러 다님.

○경기: 지난 8일 도교육청 문서전달망을 일선 학교에 서명운동 협조공문 발송. 일선 학교에서는 서명운동 참여를 요구하는 학교장 명의의 가정통신문이 가정으로 배달됨. 논란이 일자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4일 학교서명운동중지공문 발송(5일 우리회는 경기도교육청 공문 발송 담당부서에서 교육감에게 보고 없이 협조요청공문 발송 사실 확인)

○광주: 시교육위원회는 7월 9일 시교육 소회의실에서 초·중·고 교장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교육자치살리기 1000만 명 서명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 이후 시교육청을 통해 일선학교에 협조공문발송. 일부 학교에서 전교조와 합의한 사항이라며 교사들에게 서명 강요.

○부산: 6월 15일 부산시초등교장회, 부산지역 초등학교 교장들에게 시교육위원회주최 지방교육자치법 관련 토론회에 학교 한 곳당 학부모 3명 이상씩 참석 요구 공문 발송. 당일 참석한 학부모들에게 서명 요구하여 학부모들 서명함.

■ 교육계 기득권 세력의 주장에 대한 우리의 반론

주장1.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거는 선거비용 절감과 유능한 인물을 올바르게 선택할 있도록 학부모와 교직원 등 교육관계자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는 ‘제한적 직선제’로 해야 한다.

반론1. 국민들의 기본권인 선거권 제한이다.

○1991년 교육자치제도가 본격화된 이래 1998년 학교운영위원장이 선거인단이 되는 과정을 거쳐 2002년 학교운영위원 전원을 선거인단으로 확대, 2006년 개정된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2010년 선거부터 전면적인 주민직선제로 확대 실시될 예정.

○이러한 역사적 과정을 무시한 채 특정집단이 자신들의 이해를 일방적으로 관철하고자 국민들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법률개정을 요구하는 것은 집단이기주의의 발로일 뿐이다.

반론2.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남용하고 오용하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논거를 가지고(선거비용 절감, 유능한 인물 선택) 본격적인(전국적인) 시행도 해보지 않은 법률을 개정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성도 없고 설득력도 없다.

○아직도 학교는 민주적으로 운영되기보다는 학교장과 사학재단의 권력하에 놓여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학교 구성원(학부모와 교직원등)들만으로 선거인단을 구성했을 경우 과연 유능한 인물이 선출될 수 있을 것인가? 오히려 더 위험한 발상이다.

○이러다간 선거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대통령 선거를 과거 체육관선거처럼 간선제로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2010년 6월, 전국의 교육감 및 교육위원 전원이 주민직선제로 선출된다. 보궐선거 형식의 교육감 주민직선제를 시행한 적은 있으나 전국 동시선거는 2010년이 첫 시행이다. 국민적 기대가 있는 선거이다. 시행도 해보지 않은 선거를 앞두고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공감할 수 없는 논거를 들이대며 법률을 개정하고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오용하는 것이다.

주장2. 시도교육위원은 교육전문가인 교육위원으로만 구성해야 한다.

여기서 우리는 2006년 개정된 ‘지방교육자치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거를 주민직선으로 확대한다.

2. 교육감은 시도지사 선거와 분리하여 선출하며(정당 공천이 아님) 출마자격은 교육 및 교육행정 경력 5년.

3. 교육위원회는 일반 지방자치행정체제로 통합하여 시도의회 내 특별상임위원회(교육문화상임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한다. 교육문화상임위원회 정수의 1/2은 주민직선으로 선출되는 교육위원으로 하고 나머지 1/2은 시도 의원 중에서 배치한다. 교육위원 출마자격은 교육 및 교육행정경력 10년.

: 교육위원회가 독립되어 있었던 2006년 선거 시기까지는 교육 경력자와 비경력자를 각각 1/2비율로 선출했음. 분리되어 있던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로 조직을 통합했으나 경력자는 교육위원 이름으로 선출하고 비경력자는 시도 의원으로 당선된 의원 중에서 상임위 배치하듯이 배치하여 운영한다. 이에 비해 교육감은 광역시도자치단체와는 분리된 독립기관으로 되어 있다.

반론1.우리회는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거 출마자격을 5년, 10년으로 제한하는 것이 국민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다. 국회 교육상임위원 선거 출마자격에 교육 및 교육행정경력 몇 년 이상이라고 하는 경력제한이 있는가? 아니다. 교육 경력제한 조항이 국민의 피선거권을 제한한다는 주장이 광범위하게 일고 있으며 헌법소원까지 제기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고민해야 하는 시점에서 경력규정을 강화하려는 시도는 국민적인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지난 2006년까지의 선거에서도 경력자와 비경력자를 1/2 선출하지 않았는가?

반론2. 서울시의회 의원 선거구는 100여 개인데 비해 교육위원 선거구는 8개이다. 시의원 선거구의 12배 정도의 선거구에서 한 명의 교육위원이 선출되는데 시의원과 똑같은 한 표를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표의 등가성 문제). 이러한 문제라면 얼마든지 머리 맞대고 논의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위원을 경력자로만 해야 한다는 주장에는동의하기 어렵다.

■ 그 외 한나라당 주변의 교육감 ‘런닝 메이트제’ 주장에 대해

시도지사와 교육감 선거를 런닝메이트제로 하자는 주장이다. 이는 일반자치와 교육자치행정체계를 통합할 것인지 분리할 것인지의 논란으로 포장되고 있으나 현실은 그리 논리적이지 않다. 집권당이 시도지사를 거의 석권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감 선거를 시도지사와 런닝메이트로 하자에 포함되어 있을 정치적 의도에 대해 우리는 의구심을 갖지않을 수 없다. 전국적인차원에서 주민직선제로 치러질 2010년 선거를 앞두고, 채 시행도 해보지 않는 제도의 문제점을 한껏 부풀려 정당공천의 런닝메이트제를 주장하는 것을우리는 동의하지 않는다.

■ 1000만인 서명운동 관련 사태에 대한 우리의 입장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 어떻게 브레이크를 걸 수 있을까? 2010년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거에 그 해답이 있지 않을까? 일제고사실시 여부, 자율형사립고 선정문제 등에 관한 권한이 교육감에게 이관된 만큼 2010년는 그만큼 우리에게 절박하다. 더 이상 지켜볼 수조차 없는 지경으로까지 내몰리고 있는 우리 아이들과 우리 교육을 위해서도, 학부모를 동원하거나 들러리로 세워 일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교육이 특정집단의 이해관철을 위한 정치적 흥정의 대상으로 되는 것도 방지할 수 없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더욱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윤숙자(정책위원장)

투쟁하듯 대화하는 것, 투쟁도 대화다



한국교육의 문제는 아이들의 불안한 미래에 대응하는 교육론을 펼치지 않는 학교(교사)의 문제이다. 성적으로 표시되는 학력을 신장시키는 문제풀이 수업은 결국 소수 아이들과 대다수 아이들을 분별하고 그 대다수 아이들은 주변인으로 비정규직으로 살아가도록 방치해버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나는 이것을 이론이 아니라 절실한 현실로서 문제제기한다. 교사라면 이 현실에서 조금의 틈새도 보이지 않아야 하는데도, 그런데 그는 멀리 떨어져서 구경만 하고 있지 않은가. 누구라도 나서서 그 현실 말고 또 다른 현실을 내가 외면한다고 발끈해주기를 기다린다.

민주주의는 어떤 처지의 어떤 사람도 자신이 세상의 어디쯤에서 무엇을 하는지를 알고 살아가는 것을 아주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하는 사회체제이다. 땅 끝에 사는 사람들도 이 사회체제의 수혜자이기 위해, 그렇다면 민주주의는 기다림과 느림의 덕목이라고도 할 수 있다. 듀이와 프레이리는 실제로 이 덕목을 교육론으로 체계화했는데, 그들은 아이를 '위해서' 혹은 민중을 '위해서'가 아닌 아이 '의' 혹은 민중 '의' 언어를 구사하는 인간화 방식을 정립했다. 그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을 구성하고 그리고 그것을 비판하여 믿음에 이르는 방식을 교육 과정론으로 제시한다. 그들의 민주주의와 교육의 구분법에 따라, 나는 '아이를 혹은 민중을 위해서' 헌신했어, 저들을 한 번도 나쁘게 말한 적이 없어 라고 예스럽게 말하는 사람을 반민주라고, 땅 끝의 아이들을 초대할 수 있는 교실을 구성하는 일에 골몰하지 않는 교사는, 변혁을 외치든 국가경쟁력을 앞세우든, 반교육

이라고 단정한다.

추구하는 삶은, 인간의 세계에 관한 것이고 그리고 자연의 세계에 관한 것이다. 그 삶에서 우러난 잘 삶의 믿음, 교육을 만들어내고 의료를 만들어내고 사법을 만들어내고, 합창교향곡을, 살풀이춤을, 두 손 모우는 기도를, 품앗이를, 블랙홀 개념을, 듀이의 논리학을, 그것을 읽는 모임을, 참교육학부모회를, 도덕적 격률을 만들어내고, 더 넓고 더 깊이 삶을 확장한다. 우주는 이렇게 소통을 매개로 진화한다. 이 우주적 조망에 이르러 그는 한포기 들뜬 같은 존재가 된다. 그는 가장 고통 받는 타자의 시선이 된다. 어떤 자리에서 무엇을 하든 낮은 자리에 서는 몸가짐만은 달라지지 않는다. 세계를 향한 삶과 잘 삶의 신념을 더해가며 그는 '나 만들기'의 일상의 삶을 영위한다.

교육은 인간 삶을 바라보고 개입하는 반성적 활동이다. 소통의 매체를 마주 세워놓고 이모저모를 따진다. 교사는 사회적 세계와 물리적 세계의 지식체계를 소통의 매체가 되도록 교육과정 작업한다. 그 교육과정은 물음의 이어감이다. 정답이 아니라 물음이다. 물음의 실재를 인식하는 교사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는 물음의 존재론적 의미(삶)와 제도적 의미(시험)를 넘나들어야 한다. 그 교사의 교육과정 작업을 거쳐 교육이 성립한다. 교육은 그것, 하나이다. 특수목적고이든 농촌학교이든 이 하나의 교육을 실천한다. 교육과정 작업에 따라 형태를 달리하는 다양한 교육을 구상한다. 형태를 달리하는 다양한 교육을 가지고 아이들을 자유롭게 한다. 가르치는 자는 끝내는 '자유로운' 아이들을 만나게 된다는 한계개념을 잃지 않는 이상주의자의 자태를 지니게 되어 있다. 아이들이 살아 갈 세상을 근심하

» 편집자주

이번 기획특집에서는 '민주주의는 죽었다'로 틀을 잡았다. 정치·경제·언론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교육에서조차 소통이 어렵고 방향을 잡을 수 없으니 목숨보다 귀한 내 자식을 키워야 하는 우리 학부모의 고민은 커갈 수밖에 없다.

는 그 현실감각에 따른 책임감이면 충분하다. 지금 성과를 낸답시고 조급해 할 필요가 조금도 없다.

그런데 하나의 교육과 다양한 형태의 교육을 구상하는 사회적 동력이 소진되고 없다. 쓸모 있는 사람과 쓸모없는 사람을 가려내는 식민지 권력이 문제풀이를 '인재교육론'으로 상징 조작한 것에 속아서, 그것을 잃어버렸다. 민주와 인간의 시대에 이르러서도, 이른바 쓸모 있는 사람으로 평판이 자자한 자들이 인재교육론을 문제풀이 선행학습의 실천으로 계승하고 있다. 부모의 지원을 받는 아이만이 살아 남고 부모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은 학교를 떠난다. 이 교육체계의 폭력을 뻔히 알고서도 어쩔 수 없다고 자칭하여 폭력의 교실을 경영하는 학교, 알고서도 저지르는 죄는 더 큰 죄악이겠지.

거기에 정파가 있는가. 거기에 이념이 있는가. 중도가 아니라서 그런 것이 아니다. 실용이 아니라서 그런 것이 아니다. 더 배움을 얻으려는 젊은 세대와 그 젊은 세대의 삶을 돌보는 성인 세대 간의 관계를 어떤 종류의 사회관계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가 있으면 된다. 대학을 가려는 아이와 그 아이를 지원하는 부모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엄청난 자산이다. 우리가 풀어야 할 난제는, 그 자산을 탕진하는 정책을 세우고 집행해온 권력엘리트, 그리고 교육을 하면서 '교육이 별거나 성적 올리면 되지'라고 범주착오를 밥 먹듯 하는 전문가 엘리트와 대화하는 일, 그야말로 난제이다. 투쟁도 대화이다. 말이 안 되는 말을 가지고 그것이 말이 되는 양 큰 소리를 질러대는 자들과의 대화는 투쟁일 수밖에 없다. 투쟁하듯 대화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김남필(전 경북대교수)

미래세대는 민주주의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회에서 살아야 한다

민주주의의 오개념과 민주주의교육의 위기

독재를 민주주의라고 가르치던 시절이 있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을 따르는 나라라고 일관성 있게 가르쳤고 그렇게 배웠다. 민주주의는 공산주의의 반대말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었다. 공산주의는 자유를 빼앗고 동족을 전쟁으로 몰아넣은 우리 비극의 원흉이었다. 그렇게 민주주의는 어떤 적극적인 내용이 있는 말이라기보다는 공산주의가 아닌 어떤 사회형태를 의미했고 우리에게 공산주의사회에는 없는 자유가 있다고 배웠다. 자유를 수호해야 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한다고 배웠다. 분단국가인 한국에는 서구와는 다른 '한국적 민주주의'가 있다고 배우기도 했다.

교육은 그 사회의 지배적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한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진리추구라고 하는 교육의 다른 목표와 배치되기도 한다. 그래서 교육이라는 장 안에서는 지배적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하려는 힘과 시시비비를 가리고 진정한 것을 추구하려는 힘이 서로 부딪치고 갈등하기도 한다.

해방 후 분단현실 속에서 냉전체제가 지속되고 군부독재가 장기화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는 민주주의에 대한 오

개념(誤概念)을 학습해왔을 뿐 아니라 인류 역사적 성취물인 민주주의를 제대로 경험할 기회가 없었다. 우리 사회에서 그 오개념을 바로 잡기 위한 투쟁의 과정은 잘못 가르쳐진 민주주의의 역사만큼이나 길다. 잘못 규정되고 잘못 가르쳐진, 그래서 해방 후 우리 국민의 의식을 편견과 무원칙으로 마비시킨 잘못된 '민주주의교육'은 90년대 이후에야 교정되기 시작했다. 6·10항쟁으로 수렴된 지난한 투쟁의 성과라고 하겠다. 비로소 민주주의는 개개인의 양심, 언론,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적극적 인권을 실현하고 공공의 선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고 모든 개인의 기본권이 실현되기 위한 절차적 민주주의에 대해 배우기 시작했다.

최근, 이제 막 걸음마를 하는 단계에서 민주주의교육이 또 다시 후퇴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 민주주의가 적극적 인권과 공공선보다는 반공의 동의어로 회귀하고, 자유가 그것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독점하고 남용해온 사람들의 전유물인 것처럼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 민주주의는 이념이기에 앞서 실천적 과정이다. 절차적 민주주의

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경험하기도 전에 미래 세대의 교육이 또 오개념으로 왜곡되려는 위기를 목격하게 된다.

학교가 민주주의를 회피하는 공간이어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의 정의를 누구도 독점해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는 적극적으로 논쟁되고, 토론되고, 실천되어야 한다. 양심에 기초해서 말하고 표현할 수 있는 기본적 자유도 보장되지 않는 사회에서 어떻게 민주주의를 말할 수 있겠는가. 해방 후 수십 년간 왜곡될 대로 왜곡된 민주주의의 오개념은 열린 논쟁과 토론, 그리고 정당한 실천에 의해 바로잡아야 한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을 귀하게 여기고 누구도 뒤처지거나 밀어내지 않는 그런 사회이다. 이러한 사회의 실현을 유보하는 정당한 단서는 있을 수 없다. 특히 그러한 사회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붙여지는 단서라면 더욱 위험할 것이다. 미래세대는 민주주의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회에서 살 수 있게 해야 한다. 역사가 더 이상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 기성세대가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유산이 민주주의교육이다.

이윤미(홍익대 교육학과)

진정한 민주교육이란 인간을 가치화하는 것

“백성은 천 년 전에도 그렇게 살았고 지금도 그렇고 천 년 후에도 그렇게 살 거야. 왜냐구? 백성이니까!”

요즘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드라마 ‘선덕여왕’에서 옥망의 화신 미실이 나중에 선덕여왕인 덕민에게 한 말입니다.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백성을 이용하며 힘들게 하는 미실에게 왜 죄 없는 사람들이 고통 받아야 하느냐고 덕만이 묻자 천연덕스러운 표정으로 당연한 거 아니겠냐는 투로 하는 대사를 듣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금의 우리 사회가 돌아가고 있는 꼴을 보면 이 나라의 위정자나 각 분야의 수장들이나 미실과 별 다를 거 없어 보입니다. 학교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의 가치가 성적으로 가면서 소수 상위그룹에 들지 못하면 드라마 속의 미실이 힘없는 백성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것처럼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결과물과 성과물로 모든 것을 판단하다 보니 더디기만 하고 당장 눈에 띄는 성과도 없어 보이는 소위 ‘민주적’ 운운하는 것들이 귀찮고 성가시기만 합니다. 학교관리자들도 교사들, 학부모 거의 대다수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듯합니다. 교육현장의 비민주적인 현상들로 학생들이 얼마나 심각한 상처를 받고 힘들어 하는지, 또한 그러한 비민주적인 가치에 학습된 아이들이 재생산하게 될 미래의 모습을 생각해보면 아찔함을 느낍니다.

제가 활동하고 있는 인천지역에서 있었던 실사례를 얘기해볼까 합니다. 체벌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인천시교육청에서 체벌금지를 지침화하자 일반계 고등학교들에서

“배리지도 못하게 하니 교육을 할 수가 없어”라며 반발하고 나섭니다. 또 성적도 별로고 잔잔한(?) 사고를 치는 아이들을 내몰기도 하였습니다.

많은 학교들에서 권고전학이라는 방법으로 사실은 퇴학을 시키는 것이었지요. 어느 날 8명의 학부모들로부터 상담요청이 와서 시연을 듣고 보니 더 기가 찼습니다. 모두가 성적이 중하위권에 있는 아이들이었는데 학교규정을 어겨 퇴학될 위기에 처했고 학교에서는 어차피 퇴학될 거니 자진해서 전학을 가라고 한다구요. 규정위반 내용을 보니 두 번의 흡연, 두발, 복장불량 등으로 현저히 개선의 점이 보이지 않는다는든지 범죄적 수준의 것이 아닌 아이들 말로 재수 없으면 걸리는 일상적인 것들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전학을 가기 위한 절차를 알려주면서 위장전입을 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학교도 그렇게 한다면서... 그리고 그런 결정을 내릴 때까지 학부모 상담이나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진술권, 재심의 요구권 등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는 한 번도 행사되지 못했구요. 물론 교육적 노력은 시도도 하지 않았고 후딱후딱 벌점 채워서 퇴학 아니면 전학이라는 통보뿐이었습니다. 아이들 말로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같은 위반을 해도 봐준다며 억울하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학교에서 이런 방법으로 학교를 나간 아이들이 개학하고 3개월 만에 50명이 넘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몇 번의 학교장면담과 감사요청, 교육위원회 부의장으로 있는 노현경 전지부장의 적극적인 노력 등으로 가까스로 구제되

었지요. 정도의 차이 지 같은 문제의 상담들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문의라도 해오는 학부모는 용기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지요. 좀 억울한 거 같아도 그냥 학교가 하라는 대로 하는 학부모가 대다수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이 인권이야기 같기도 합니다만 ‘민주’를 말할 때 인권을 근간으로 하지 않고는 생각해 볼 수도 없으며 더더욱 실천하기란 불가능하기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민주교육이란 인간을 가치화하는 것이라고 한마디로 정의해 봅니다. 능력도 아니고 금전도 아닌 인간의 가치 그 순수함 자체 말입니다. 법적으로 그 활동에 권한을 갖는 학교운영위원회조차도 학교장 눈치 보며 할 말 못하는 작금의 현실에서 민주교육이란 꿈같은 희망사항이겠지요.

교육 관료들이나 관리자들이 잘 쓰는 말 중의 하나가 또 이 ‘민주’입니다. 형식적 절차만 밟으면 다 민주가 됩니다. ‘민주’ 안 하겠다 하면 난리가 날 테니 교묘한 꼼수로 무늬도 아닌 것을 민주라 하니 참 환장할 일입니다. 알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민주주의가 뭔지 모르는 것도 같아 어쩔 땐 안쓰럽기까지 합니다. 학교에서의 교육이 더 중요한 것은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학습되어진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모두가 존중받고 서로 돕기를 주저하지 않는 마음이 발휘되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민주교육의 출발점이라 여기며 글을 마칩니다.

최혜경(인천부지부장)

결국 문제는 교육이다, 교육

요즘 정말 보기 드문 일들이 줄지어 발생해서 어안이 병병하다. 특히나 ‘민주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 혼란부터 시작해서 착잡함을 넘어 무기력을 느낄 정도의 현가증 나는 상황을 만나고 나서는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있고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민이 어안이 병병한 상황을 겪고 있지만 ‘민주시민’ 육성(양성)을 그 목표로 하는 학교에서 생활하고 있는 교사로서 느끼는 곤혹감은 또 다른 측면이 있다.

민주시민이란 민주주의의 가치를 내면화해서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는 건강한 의식과 실천력을 겸비한 생활인을 말하는 것일 것이고 학교는 어린 학생들이 이러한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역할을 부여받고 있는 곳이다. 그런데 학교에서 가르치는 민주적 가치와 질서, 배려와 존중,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의 소중함 등이 깡그리 무시되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이제는 일상화 단계에 접어들게 되면서 도대체 어떻게 무슨 교육을 해야 하는지 방향을 잡을 수가 없다. 학교 교육이 가정, 사회와 동떨어져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 요즘 학생들이 기성세대와 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정보 접근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고려하면 그들의 눈에 보이는 요즘 어른들의 ‘노는 꼴’이 어떨까 두렵기까지 하다.

외부 관전자의 입장에서 정부나 국회에서 발생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바라보는 것은 ‘허무주의’에 빠질 염려는 있지만 피부에 닿는 생활의 변화와 직결되지 않는다. 아니 이렇게 생각하고 싶고 그렇게 생활하고 싶다. 그러나 세상 모든 일이 모두 관련되고 연관된 일인데 어찌 그럴 수가 있나. 절차 없이 집행만 하려는 막무가내식 일 집행,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무시와 배제, 내 사람만을 확실히 챙겨주는 의리(?), 자기 이익을 챙기는데 거리낌이 없는 뻔뻔함, 불과 2년도 안 되어 내가 생활하는 공간의 일처리 방식이 이런 흐름 속에 놓일 줄이야.

먼저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이러한 변화의 물꼬를 트더니 곧 학교 현장까지 이러한 분위기에 휩싸이게 되었다. CCTV 설치 문제를 논의 없이 찬반 의견만 물어 결정하더니 수천 만 원짜리 연구시범사업도 하게 되었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한다.

학생들의 오래된 요구는 몇몇 사람의 논의과정에서 가볍게 무시된다. 급변한 상황에서 또다시 물을 수밖에 없다.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제도적으로 미흡한 것인가 아니면 사람들이 민주적 가치를 존중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있었을 뿐인가. 지금의 제도로 운영되었던 지난 10년을 생각하면 발전적 보완은 필요하겠지만 제도 자체가 문제의 온전한 요인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다. 그렇다면 결국 사람이 문제인가. 그러면 결국 문제는 교육이다. 교육.

대통령 한 사람의 성향과 일처리 방식이 전체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 다시 말하면 자기 삶의 방식을 갖지 못한 비주체적 인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나이만 성인이지 주체적인 자기 삶을 살지 못하는 덜 떨어진 사람들, 그동안 우리 교육이 만들어낸 ‘민주시민’의 모습이다.

그래서 다시 생각할 수밖에 없다.

상황이 암울해질수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해진다. 삶을 변화시키는 교육, 아이들이 자기 삶의 주인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돕는 것, 교과서 내용이 아닌 아이들의 삶의 공간학교를 민주주의가 넘실대는 곳으로 변화시켜 민주주의를 공기처럼 마시면서 커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 배려와 존중 속에 충분히 사랑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 그리하여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를 진정으로 내면화한 ‘민주시민’을 기르는 것, 결국 진정한 민주주의의 진지를 만드는 것은 우리가 그리고 교육이 다시 본질을 회복하기 위한 내면의 성찰에 힘을 쏟아야 하는 지난한 과정이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또 다른 괴물의 출현을 막기 위해서라도...

김영삼(자문위원)

MB야! 하늘 아래 아이들의 신음소리가 안 들리니?

자율형사립고설립반대! 고교평준화해체반대! 전국학부모기자회견

지난 7월 9일(목) 12시 30분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전국 지부지회 활동가들이 모여 자율형사립고설립반대! 고교평준화해체반대! 전국학부모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고교평준화를 해체시키고, 천만원대의 등록금으로 학부모부담을 가중시켰다. 또 초·중학교부터 사교육 과다경쟁이 예견되고, 입시위주의 교육과정으로 우리 아이들을 황폐화시킬 자율형사립고설립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3시간여 동안이나 비를 맞으면서도 곳곳하게 자리를 지켜낸 지부지회 회원들! 폭우 속에서도 자리를 뜨지 않는 그 결의로 우리 아이들을 지켜낼 것이다.



지역별 기자회견 및 연대활동



본부

1회 학부모아카데미 4~5강



지난 7월 2일(목)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김용일 교수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에 대한 열정적인 강의'가 있었다.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배경과 역사를 아는 데서부터 멈출 줄 모르는 MB정부의 상황까지 파고들며 대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토론이 되었다.

심야학원교습금지법안을 즉각 추진하라!



학부모들의 투쟁의 춤바람!



수원지회

제주 올렛길에서 결의를 다지고 있는 회원



훈 령하십니다!

양주지회

양주문화답사 및 교육강좌



경남지부

1박2일 여름연수를 다녀오다



2009년 7월18일~19일 1박2일 동안 거제 자연휴양림에서 여름연수를 다녀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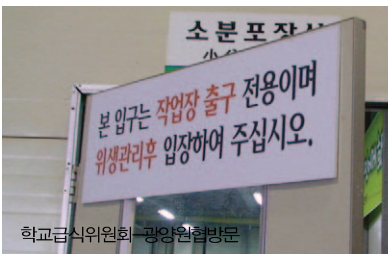
프로그램으로 *선배와의 대화: 참학이 걸어온 길(김영만고문님) *선배와의 대화: 교육복지(김현옥 진주지회회원, 교육연대집행위원장) *경남학생 인권조례(고영남 인제대교수) 다. 장마로 인해 다수의 인원이 불참을 했으나

2009 경남지부 여름연수는 순조롭게 마무리 되었다. 또 자연속에서 아이들과함께한 연수라 더 의미있고 뜻깊었다.



광양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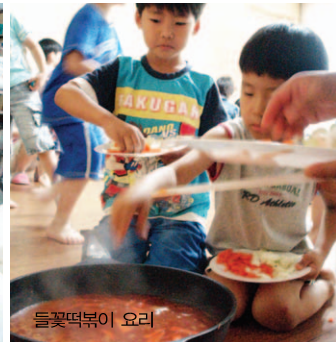
왕성한 활동을 모범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광양지회를 엿보다



학교급식위원회-광양원협방문



도선마을에서 도자기 체험



들꽃떡볶이 요리

대구지부

영어캠프를 열다

영어 사교육은 전혀 하지 않았던 초등4학년이 1등 했다고...



광주지부

2009년 여름생태캠프

“자연과 시간이 만나는곳! 지리산을 느껴요! 보아요! 담아요! 반달가슴곰과 함께 걸어 보아요.”



2009 역사기행 제2탄



소모임 아름다운예술단의 야외수업



나주시회

전통 손맛으로 웰빙을 나선다



순창전통고추장 만들기



고추장 불고기피자 만들기



인절미 만들기

울산지부

6월27일 제87회 역사기행 - 동해안의 방어기지 동구지역기행



7월회원강좌-심상정의 핀란드 탐방 보고회 "핀란드 교육을 말한다!"



파주시회

2009 여름캠프 "숲속 자연학교"



을 여름엔 상쾌한 공기와 풀냄새를 맡으며 자연을 직접 느껴볼까요?
파주 자연학교에서 좋은 공기와 야생화를 즐기며 하루를 함께 보내요.
공부에 지친아이들도 일상에 지친 부모들도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사람향기 바람따라 ● 윤지희(선배회원)



참학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4대 회장을 역임했던 윤지희입니다. 저를 기억하는 분들도 계시고, 제가 떠난 이후로 가입하신 분들은 아마 낯선 분들도 계시겠지요. 저는 95년도에 서울동북부지부장을 지낸 이후에 본부 사무처장, 부회장을 거쳐 99년도부터 4년 동안 회장을 맡아서 활동을 했었지요. 회장을 할 당시에 제가 회장을 맡을 역량을 갖추었던 것도 아니고, 당시 이해찬 교육부장관 시절 교육정책에 대한 단체 내 이견으로 전 지부가 갈등을 빚었던 시기로, 내부적으로는 그 이견들을 조율하고 단체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과, 외부적으로는 나날이 커가는 학부모단체에 요구되는 역할에 부응해야 할 두 가지 소임을 다해야 하는 막중한 부담에 어려웠던 나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아도 제가 몸담았던 시기에 아쉬움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가진 한계 내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가진 알량한 능력과 제게 주어진 시간 거의 모두를 참학에 쏟았고, 당시의 우리의 역량과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해 아이들의 건강한 삶과 교육을 위해 힘썼었다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부모님께 생명을 얻어 부모님의 보살핌 속에 살았던 제1기의 인생, 그 후 세상에 대해 새로이 눈떠 스스로

의 삶을 열어온 제2의 인생, 그리고 인생의 3기에 해당하는 참학 시절의 10여 년의 세월이 제 인생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큰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시작한 참학 활동으로 인해 어쩌면 이리저리 흔들릴 수 있었던 자녀 교육은 나름대로 중심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아이 모두 별 탈 없이 성년의 나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 힘겨운 이 땅의 아이들의 삶과 부모들의 고단한 삶을 함께 걱정하며 노심초사하였던 시간들로 누추한 인생을 귀하게 쓸 수 있었던 참 소중한 시간들로 기억합니다.

저는 아직도 교육운동을 떠나지 못하고 작년부터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라는 교육단체를 만들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참학활동을 하던 10여 년 동안 한눈팔지 않고 달려왔지만 별 달라지지 않은 교육현실에 절망하고 포기하려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차마 돌아서지 못하고 여전히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교육운동을 하는 15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수많은 교육부장관, 교육관료들, 국회의원들, 교육학자들을 보았고 또 제 옆을 스쳐가기도 했습니다. 결국 남는 하나의 생각은 어떤 이념과 정치적 경제적 이익에도 경도되지 않은 힘없는 우리 학부모, 시민들만이 헤아날 길 없는 이 척박한 교육을 언젠간 끝장낼 거라는 믿음 하나입니다. 그 믿음

하나로 다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을 시작했습니다. 더불어 교육운동이 소수의 깨어있는 활동가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힘없는, 흔들리는 시민들, 학부모들과 함께 갈 수 있는, 지혜 있고 통찰력 있는 교육운동을 새롭게 펼쳐가고 싶은 소망을 펼쳐버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참학이 벌써 20년의 역사를 가졌지요. 참학에 혼신을 불어넣었던 사람으로, 그리고 참학으로 인해 부족한 제 인생이 가치 있게 쓰이게 됨에 무한한 감사의 마음을 지닌 사람으로, 참학이 우리 교육의 역사를 새롭게 바꾸고 교육의 근본을 바로 세우는데 기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1의 학부모단체에 안주하지 않고 늘 변신과 개혁에 도전하며, 기존의 관념을 늘 새롭게 보기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학부모와 아이들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는 감수성을 늘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뜨거운 여름날에도 왜곡된 교육을 바로잡기 위해 땀 흘리고 애쓰는 전국의 참학 동지들... 외롭다 생각마시고 힘내세요.

개인으로는 한없이 나약하고 힘없는 우리 학부모들만이 우리 아이들의 고통스런 교육을 바로잡을 수 있고, 또 부모의 그런 수고를 배우고 자라는 우리 아이들 역시 세상에 자신을 내어놓는 헌신의 삶을 살 것입니다.

살아가는 동안 아이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수고의 한 길에서 또 땀을 바랍니다.

● 선배에게 듣는다⑧ 이희한(전 광주지부장)

학부모운동 계속되어야 한다

“바로서는 학부모, 우뚝서는 아이들”

참교육학부모회의에 발을 처음 디디어 이 말을 발견했을 때 얼마나 위로와 희망이 되었는지 모른다. 큰 아이를 초등학교에 보내놓고 2년째, 학부모의 역할에 대하여 갈피를 못 잡고 있었다. 그리고 1996년 처음 국공립학교에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학교운영위원회에 학부모위원으로 열떨결에 추천되어 참여를 해야 하는데 막막하기만 했다. 그때 찾은 곳이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재창립준비위)다. 1989년 전국의 참교육학부모회가 만들어질 때 선도적 역할을 했던 광주지부가 조직 활동이 약화되어 만 2년을 쉬다가 학교운영위원회 전국순회강좌를 계기로 다시 재창립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 시기에 교육현장에서는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었다. 소위 '교육개혁' 인데 특이한 것은 이것을 정부가 주도한다는 것이었다. 1996년 5·31 개혁 안에서는 학부모로서 매우 환영할 만한 민주적 장치와 조치들을 쏟아냈다. 교사들도 동의하는 분위기였다. “열린교육, 자치참여교육, 학부모회, 학교운영위원회, 종합생활기록부, 대학교 특성화 등”의 정책이다. 교육개혁안이 말하는 ‘획일적 교육에서 학생이 타고난 소질과 창의성을 배양하는 다양한 교육’은 본회가 제정한 학부모헌장의 취지문에도 드러난 말이다. 이렇게 새로운 교육정책들은 참교육학부모회가 활발히 제 역할을 해주길 바라는 것 같았다. 단지 문자적인 정책들이

그랬다.

실제로 교육현장에서는 엄청난 거부감과 반발이 있었다. 그리고 정부의 교육개혁과 정책들에는 복병이 있었다. 밑바닥에 흐르는 사상에는 세계시장주의, 경쟁, 효율을 지향하는 신자유주의가 숨겨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학부모, 학생을 교육 수요자로 보고, 교사를 공급자로 보았다. 정부는 정작 개혁의 대상인 교육행정가들과 교사들을 함부로 개혁하려 했다. 학부모들은 꾸준히 무시했다. 김대중 정부로 넘어오면서 신자유주의적 요소들이 보안되는 정책들이 나오기는 했으나 만만하지 않은 교육 관료주의와 민주화반대 세력, 이기적 학부모, 집단이기주의적 요소들을 들어내는 교사들... 역사는 쉽게 진보되지 않았다.

〈교육개혁연대회의〉로 많은 교육시민단체가 모이면서 진상을 파악하고 토론하며 일을 해나가게 되었다. 교사운동, 교육시민운동, 대안교육운동, 학부모운동들이 일어나고 있으나 교육현장은 쉽게 변화하지 않는다. 본회에서 학부모를 교육주체로 세우기 운동, 학부모주권 찾기, 불법 찬조금, 촌지근절운동, 학부모회 법제화운동 등 활발한 활동을 벌렸다. 본회 창립초창기부터 전교조와 강한 교육연대운동을 해왔는데 이제는 각 교육주체로서 자기분야의 바른 역할에 대하여 더욱 고민하면서 학부모운동의 정체성'에 대한 깊은 정책토론들이 일게 되었다. 바로서는 학부모, 우뚝서는 아이들. 복잡한 시대에 희망이 되는 말이

다, 그러나 참으로 어려운 작업이다. 학부모로서 바로서는 길은 쉽지 않았다. 1986년 교사민주화선언 이후 교육운동이 탄압받던 시대는 오히려 단순하고 정신을 바로 차리기 쉽다. 이제 외향적인 민주화는 진행되었으나 탐욕스런 세계 자본들이 움직이는 신자유주의가 교육에도 숨어드는데 교육민주화, 인간적인 교육을 하려는 운동방식이 다양화되어 힘을 모으기 힘들다. '바로서는 학부모'의 길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불만에 쌓였던 보수적 사람들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모든 것들을 뒤집으려하는 것 같다. 어떻게 손쓸 수 없는 경쟁교육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 정부는 어디까지 가려고 이러는 것인지. 참교육학부모회의 역사를 다시 살펴보면 우리의 몸부림, 아이들의 고통들을 다시금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하겠다.

* 선배에게 듣는 우리 역사가 너무 무거워진 것 같다. 아이들을 대학 보내고 있고, 셋째는 숨 막히는 인문계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다. 그리고 늦게 주신 복등이는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다. 바로서는 학부모이고자 많은 동지들과 함께 해왔기에 견딜 수 있었고 아이들을 돌볼 수 있었다. 즐겁고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왔다. 참교육학부모회는 나의 사회학교였다. 요즘 집중하고 있는 생협 활동에도 큰 힘을 키워주었다. 현재 우리에게 올바른 학부모운동은 너무나 유효하고 절실하다.

좋은 프로그램 영보기

EBS 어린이 리얼리티 쇼 유아독존

MBC 무한도전이 있다면 KBS에는 1박2일이, SBS에는 패밀리가 떴다가 대세! 세 프로그램의 공통점을 찾자면? 바로 리얼리티 쇼라는 거! 리얼리티 프로그램은 시청자가 직접 체험하는 것처럼 생생한 느낌이 든다는 것이 장점! 다만 아쉬운 점은, 어른들이 주인공이라는 점. 우리 아이들이 직접 체험하면서 만들어가는 리얼프로그램이 있으면 아이들에게 유익할 텐데.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등장했다. 이름하여 어린이 리얼리티 쇼! 유아독존! 다섯 살 막내부터 여덟 살 말년까지 6명의 유아독존 멤버 17기의 리얼여행기! 유치원에서 가르쳐주는 놀이가 아닌, 체험하고 도전하면서 알아갈 넓은 세상이 아이들을 기다린다. 하나부터 열까지 도시와는 전혀 다른 시골집체험부터 서당은 물론, 동물원 청소도 하고, 1주일 동안 열심히 연습해서 어린이 응원단 친구들도 만나고 진짜야구장에 가서 야구 응원석을 가득 메운 사람들 앞에서 공연도 한 우리 유아독존 친구들!

어디 그뿐이라, 보물을 찾아 떠나기도 하고 2009 신춘향전을 찍기도 하고, 어디서 꽃무늬바지는 찾아입고 농부가 되기도 했다. 좌충우돌 개구쟁이 유아독존 친구들. 이것저것 체험하면서 생각도 깊어지고 친구를 생각하는 마음도 커졌다는데.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의 생각도 깊어지고 한층 더 성숙해지지 않을까. 앞으로 2기 친구들의 활약도 기대된다. 이번 호의추천 프로그램 “리얼리티 쇼 유아독존!”은 EBS에서 수요일 밤 7시 50분부터 볼 수 있다. 재방송은 토요일 오후 3

시부터 방송한다.

EBS 교육 패러다임을 바꾸자

교육을 바꾸자고? 또? 수시로 바뀌는 게 우리교육. 더 좋아지기 위해 바꾼다는데, 아무리 바꾸고 바뀌도 잡음만 나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 힌트는 EBS에 ‘교육 패러다임을 바꾸자’에 있었다! 총5편에 걸쳐 방송된 EBS 창사특집 “교육 패러다임을 바꾸자”

1부에서는 ‘우리는 미래 인재를 키우고 있다’, 2부는 미래교육 새 틀을 찾아라, 3부에서는 ‘미래사회, 학교는 살아남을까’, 4부는 ‘사교육비 절감, EBS의 역할은’, 5부는 ‘왜 모두 대학에 가야만 하나’라는 주제로 교육, 경제, 사회 등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토론을 벌였다. 1부는 오현석, 유순신, 박경철, 홍사중 씨가 출연했다. 토론자들은 성춘향-이몽룡은 15세였는데 17세를 과연 성인으로 봐야 할까? 정자용 시인은 몇 살에 장가를 갔을 까와 같은 소재를 통해 아이들을 바라보는 어른들의 시각에 대해 조명한다. 또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과연 어떤 모습일까? 아이들의 능력을 기르려면 사회와 국가는 어떤 지원을 해야 할까? 아이들에게 필요한 교육은 무엇일까? 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2부는 김영철, 박금주, 정미라, 김태철 씨 등이 나와 토론을 했다. 초등학교6년, 중학교3년, 고등학교3년, 대학교4년이라는 기본 골격은 1951년 개정 교육법 그대로인데, 과연 아이들을 이 학제로 계속 가르쳐도 될까라는 의문에서 토론은 출발한다. 또 미래 사회에서 사람의 직업이 평생에 걸쳐 수시로 바뀔 텐데 이에 대한 적절한 교

육지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 국민 누구나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해 주도록 교육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이야기들을 다룬다. 즉 교육이 아니라 학습의 틀에서 대한민국 학제의 틀을 고민하자는 이야기였다. 3부의 주제는 조금 더 흥미롭다. 과연 미래사회에 학교는 살아남을까라는 주제다. 미래학자들은 교육혁명시대, 즉,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홈스쿨이 증가하고 온라인 교육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학교들은 그런 교육을 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 3부에서는 정재승, 박영숙, 이수광, 송승훈 등이 출연해 대화를 나누며 예견하는 학교의 미래상과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심도 있게 논의했다.

4부는 문용린, 이원희, 진성호, 최재성 씨 등이 나와 한국경제를 뒤흔드는 사교육비의 원인을 짚어보고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그 해법을 EBS 프로그램에서 모색했다. EBS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했으며,

5부에서는 문용린, 권대봉, 박주현, 박경철 씨 등이 출연하여 왜 모두가 대학에 가야하는지 논의했다. 우리나라의 사교육비는 총20조원. 대학진학률은 84%다. 그만큼 바꿨으면 공교육도 자리를 잡고 아이들도 즐겁게 교육을 해야 할 텐데. 바꾸면 바꿀수록 뒤죽박죽이 되는 이유는 바로 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호박에 줄긋는다고 수박 되냐는 말이 바로 이런 때 쓰는 것일까. 도대체 왜라고 생각해 온 아이들과 학부모의 궁금증을 해소시켜주고 어떻게 하면 될지 방향을 제시해주는 프로그램! EBS “창사기획 교육 패러다임을 바꾸자”는 EBS홈페이지에서 다시 볼 수 있다.

한유나(편집위원)

쉽 터



군말산책 4

은적산



213호부터 쉽터 코너에 최기종 회원의 군말 산책을 실었다. 최기종 회원의 시집 『나무 위의 여자』에다 군말을 덧붙여서 부부 사이를 조명한 글이다. 군말은 사전 뜻으로 ‘쓸데없는 말’이지만 한번쯤 읽고 넘어갈 말이기도 하다. 이 쉽터를 통하여 우리 부부 사이를 한번쯤 생각해 보자

봄날에
아내와 함께
숨은꽃을 찾으려
은적산을 오른다.

길앞잡이 벌레
앞장 세우고
산딸꽃, 은초롱꽃
머리에 꽂아주며
은적산을 오른다.

들숨과 날숨이
복사꽃 피어내는
크낙새 울음우는
활시위 팽팽한
은적산을 오른다.

최기종시집 『나무 위의 여자』 중에서

군말
은적산은 전남 영암군 서호면 장천리에 있다. 해남에도 은적사라는 절이 있어서 사람들이 해남에 있는 산으로 오인하기도 한다. 내가 은적산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다. 첫째는 그 고유명사가 너무 시적이다. ‘은적’이라는 어감이 고요하고 착하게 느껴지고 속세를 떠난 것 같아서 좋았다. 둘째는 산세가 그리 험하지 않고 올망졸망한 산들이라 쉽게 오를 수 있어서 좋았다. 부부 사이 알몸으로 뒹굴듯이 헛기침 몇 번 하면 내려올 수 있는 산이기 때문이다. 또 하나 덧붙인다면 어떤 일인지 은적산에만 가면 활기가 넘쳐나서 좋았다.
우리 부부가 즐겨 찾는 코스는 관봉 쪽이다. 관봉은 그 형상이 관을 쓴 학자처럼 보인다. 전설에 의하면 관봉에 오르면 벼슬자리를 얻는다고 했다. 봄날이었다. 우리는 관봉으로 가면서 술순도 따고 고사리도 따다. 술을 담그려고 술순 따는 게 주목적이었는데 탐스러운 고사리도 꺾은 것이다. 여러 가지 봄꽃들도 많이 피어 있었다. 예쁜

것으로 하나 꺾어서 아내 머리에 꽂아주었다. 그 옛날 산골 처녀처럼 느껴졌다. 그런데 황토길에 날벌레가 있었다. 우리가 가까이 가면 날아서 저만큼 내리고 다시 다가 가면 꼭 저만큼 내리면서 우리를 인도했다. 꼭 땅벌레 같았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름이 길앞잡이 벌레였다. 행인들을 인도하는 벌레라고 해서 길앞잡이라고 한다고 했다. 중턱에 다다르니 숨이 차올랐다. 들숨과 날숨을 뱉어내면서 가파른 길을 재촉했다. 뒤에 붙은 아내의 숨소리가 귓전을 파고든다. 아내가 숨을 할딱이며 쉬어 가자고 한다. 발을 멈췄다. 아내의 이마에 구슬땀이 맺혀 있었다. 어디선가 새소리가 들려왔다. 봄별이 파사로운 날이었다. 온갖 만물이 요동을치고 있었다. 우리도 이렇게 요동을 치면서 관봉에 올랐다. 영암 평야가 한눈에 들어오고 저 멀리 영산강이 내려다보인다. 그런데 은적산은 우리 집 침실에도 있었다. 활시위 팽팽한 은적산이었다.

최기종(목포지회회원)

김포지회

황금 같은 시간을 만들어가고 있는 소모임 '문화나누기'



여름 햇살이 뜨겁게 달궈지기 전에 우리는 모였습니다. 오늘은 김포지회 소모임 '문화나누기' 회원들이 함께 위안

부할머니들의 삶에 관한 영화를 함께 보기로 하였습니다. 김포시 여성회관에서 무료로 상영하는 영화인데 평소 접할 수 없는 영화라 정기모임 날짜가 아니지만 모이기로 하였습니다.

'문화나누기' 소모임은 이름은 굉장히 그럴듯 해보이지만 실상은 무엇이든지 함께 하고 싶은 회원들의 욕구해소의 다른 이름입니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김포지회 설립까지 매주 모임을 가졌었습니다. 여러 사회 현상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도 했고 참교육에 대한 진진한 고민도 있었고 열띤 독서토론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처음 얼굴 본 식구들끼리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문화나누기는 이 과정의 연장입니다. 정식 지회가 만들어지면서 매주 얼굴을 보던 우리들이 조금씩 멀어지는 느낌이 들었

기 때문에 정기회의 말고 부드럽게 만날 수 있는 장을 만들자는 생각이 문화나누기란 소모임을 만들어낸 것이지요.

아직은 많은 것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지회창립 이후 조금은 휴식 기간이 있었고 고노무현대통령 서거라는 어마어마한 슬픈 일도 있었고... 첫 모임은 6월 첫째 주 금요일 '마더'라는 영화를 보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조조할인을 받으며 영화를 보고 함께 점심을 먹으며 영화에 대한 각자의 느낀 바를 나누었습니다. 함께 같은 영화를 보았음에도 참 다른 생각들이 있을 수 있음에 신기했었습니다. 전혀 상반된 내용의 느낌들이 나올 때는 아, 느낌이란 나눌수록 다양해지고 커지는구나 감탄도 했습니다.

문화나누기 회원 중에는 영화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특히 좋은 한국영화에 대한 관심말입니다. 영화선택은 이 분들이 맡아주시기로 하였습니다. 다른 회원은 사회 현상에 대한 관심이 많으십니다. 사회 현상에 관련된 여러 책들을 이 분이 소개하셨습니다. 2차 모임은 이분의 천거로 '갈등 해결의 지혜'라는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회원은 문화공연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 분은 다양한 공연 소식을 전해주면서 함께 할 수 있는

공연을 권해줄 것입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엄마들에게도 없던 시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특히 오전 시간은 그야말로 엄마들만의 시간이 됩니다. 그 황금 같은 시간을 어찌보낼지 고민이 되신다면 김포지회의 문화나누기 회원들께 연락을 주시면 어떨까요. 아니 그 이전에 나와 마음이 맞는 친구를 찾아 이곳 저곳 돌아보며 마음이 흡족함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찾아보면 어떨까요. 그 속에 문화가 있습니다. 나만의 문화, 우리만의 문화, 그리고 우리 모두의 문화. 우리는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이면서 다양한 문화를 누리는 수혜자요 창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김포지회 문화나누기 소모임은 그렇게 문화소양을 키우며 문화를 만들어가는 모임이 될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고양 어울림누리에서 전제덕의 하모니카 공연을 볼 예정입니다. 가슴을 울리는 하모니카 음률에 어쩔 새로운 소모임이 만들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모니카 배우기' 말입니다. 이렇게 문화나누기 소모임은 다른 소모임 결성에 바탕이 될 수도 있는 문화맛보기입니다.

노계향(김포지회장)

‘당당하고 쿨한 그녀의 목소리’

영화를 보는 내내 진실을 믿고 용기 있게 신념을 실천하는 일본 여성들의 활동에 전뿔 부끄러움을 느낀 것 같다. 일본 중군 위안부들의 실상과 전후 삶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이 미안해서 영화관을 나서면서는 명치가 빠근했다.

20일 '참학 문화나누기' 소모임 회원들과 여성회관에서 '나의 마음은 지지 않았다' 영화를 관람했다. 영화는 60여년 전, 열여섯 살 어린 소녀가 전쟁터에 끌려가 7년 동안 일본군의 전쟁 위안부로 청춘을 유린당한 과정을 폭로한 후, 일본 정부를 상대로 법정 투쟁하며 상흔을 치유해가는 과정을 다룬 기록다큐다. 송신도 할머니의 아픈 증언을 사실로 인지한 한 일본 여성이 '재일 위안부 재판을 지원하는 모임'에 할머니를 알리고 할머니의 의사에 따라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를 목표로 10년 동안 한결같이 소송을 지원한다.

애당초 이 영화는 가공할 국가 공권력에 무참히 유린당한 인권도 신뢰를 바탕으로 한 사람사이의 진정한 소통으로 치유할 수 있다는 희망을 밑그림으로 설정한 듯 소송의 결과에서 한 걸음 물러서 있다. 이 과정은 패전 일본의 치부인 위안부 문제를 일본인들이 한국인을 지원하며 폭로하는 형태여서 전방위 외압이 예상되지만, 카메라는 할머니와 모임 구성원들의 내적 갈등을 가늠하는 인터뷰를 통해 신뢰 형성 과정에 초점을 맞춘다. 이들은 당당하고 거침없고, 때론 격렬하게 울분을 토로하는 할머니를 진심으로 신뢰하고 응원하며, 1차 소송에 패소하자 안타까움에 눈물

로 서로를 쓰다듬으며 함께 전쟁의 피해자가 된다.

대개의 사람들은 힘이 있다고 판단되는 권력에 기대고 싶어한다. 사안 따라 그 권력이 부정할 거짓을 행사해도 행여 자신에게 가해질 불이익과 소화가 두려워 용기 있는 비판 대신 다수의 침묵에 편입한다. 그러나 소수인 그들은 진실을 공유한 당당함으로 할머니와 자신들을 굳건히 방어한다.

“너는 가정도 있는데 끝까지 나를 지원할 수 있어?” 할머니가 물을 때 “네~!” 명쾌히 대답하고 손가락 걸어 맹세하는 일본 여성운동가의 진정한 용기에 눈물이 흘렀다. 아름다운 인간애의 승리다. 그 눈물의 연대는 끝내 송 할머니로 하여금 “바보 같은 전쟁은 두 번 다시 하지 마라”는 한결 같은 공언을 놓고 신념에 찬 이 메시지는 인류 평화기원을 품는다.

심민재(문화나누기 회원)

영화 ‘마더’를 보고

영화 마더를 참학 문화나누기 소모임 회원들과 같이 보았습니다.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이나 주연을 맡은 배우들에 대해서야 그네들의 내공에 신뢰도가 크고 단단하니 만큼 기대도 컸지요.

영화를 보고 '마더'라는 영화 제목에 대해 곰곰 생각했어요. 글썽요, 제가 좀 촌스럽나요? '마더'는 '어머니'나 '엄마'라는 말이 주는 살가운 정감이 생략되어 있는 듯 느껴집니다. 마치 '김OO 씨 나, '무미건조한 삶의 OO씨' 같은 다른 영화 제목들이 팔호 안에 숨겨져 있을 듯합니다. 그렇게 엄마라는 존재를, 그 말이 주는 정서를 배제시키고 객관화해 놓고서 '마더'라는 제3의 존재, 엄마를 우리에게 보여주네요.

일찍 결혼한 친구가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간 적이 있어요. 그 친구, 아직 붓기가 가시지 않은 얼굴로 누워 있다가 아기를 데려와서 헤벌쭙해져서는 “엄마! 엄마!”하는 겁니다. 아직 눈도 못 뜬 아기한테요. “ 좋겠네! 이쁘네!” 하고 밖으로 나와서 같이 갔던 친구와 어이없어 하며 웃었지요. 근데요, 몇 년 후에 제가 그러고 있더라구요! 작은 생명이 엄마 몸에 뱃줄로 연결되면서부터 아기와 엄마는 그렇게 고리 지어져 엄마로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 그렇더라고요.

저는 요즘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얼마큼 놓아 주어야 하는가?’라는 명제가 생겼습니다. 얼마큼 아이를 믿고 선택권을 주어야 할 것인가? 얼마큼 엄마의 욕심을 배제하고

아이에게 “그래, 너는 너야”라고 담담하게 말할 수 있을까 하는.

영화 마더는 자식을 적당한 거리만큼 떼어 놓지 못했고, 온전한 개체로 인정해주지 않았던, 그리하여 결국은 비극적 결말에 이르고 마는 실패한 엄마가 되니까요.

영화의 마지막 장면. 관광버스를 타고 가다 사람들에게 쉼여춤을 추는 '마더'의 모습을 보며 너무 가슴이 아리고 슬펐습니다.

‘이제 저 엄마는 어찌해야 할까? 얼마나 힘들까? 저 삶의 무게를 어떻게 견뎌낼까? 그래서 그녀를 자식을 잘못 키운 거 아니냐고, 살안까지 했냐고 비난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녀의 모성이 그렇게 일그러지기까지 그녀는 사회로부터 누구한테도 보호받지 못했으니까요. 저한테는 엄마와 아이와의 거리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영화였습니다.

김은실(문화나누기 회원)

학부모들부터 미디어매체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이 글을 읽으시는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원님들의 관심사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자녀들의 교육과 관련된 것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특히나 요즘과 같이 자녀분들이 인터넷, TV, DMB, IPTV 등 다양한 매체들을 쉽게 접하게 되는 상황에서 혹시 유해한 내용들이나 왜곡된 사실들이 어린 자녀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예전 같으면 TV 코드를 빼버리거나 리모컨을 숨겨 놓으시면 해결될 수 있는되는 문제였지만, 이제는 다른방식으로 자녀들에게 올바른 미디어매체의 이해와 활용을 가르쳐야 하는상황이 되었습니다. 무작정 막을 수도 없는상황이고, 자유롭게 풀어두기에는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상황이지요.

미디어 교육학자들은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을 이해하는 능력은 현재와 미래의 핵심적인 생존능력이 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근래 주목받고 있는 *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의 개념이 바로 이것으로, 자녀들이 다양한 맥락에서 미디어를 이해하고 창조할 수 있는능력을 배양하는 방법중 하나가 바로미디어교육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생소한 분야에 대해 이 나이에 다시 공부를 시작하셔야 한다고 걱정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으시겠지만 어린 학생들

에게 미디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하는교육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녀들의 미디어교육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명쾌한 해답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미디어 교육의 전문가도 아니고 실제 교육을 해본 적도 없는 문외한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수년간 미디어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단체들의 활동을 지켜보고 어꺼너머로 공부한 결과, 자녀들의 미디어교육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방법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부모님들께서 올바르게 미디어를 이해하시고 활용하시는 모습을 보이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어떻게 부모님들의 미디어교육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정답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부모미디어교육에 참가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노골적인 광고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 학부모님들의 필요와 요구를 잘 이해하고 있는단체에서 실시하는교육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이고 만족도가 높은교육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부디 많은 학부모님께서 교육에 참가하셔서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재직하고 있는 방송문화진흥회(www.fbc.or.kr)에

서는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의 '학부모미디어교육'과 같은 여러 단체들의 미디어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미디어교육과 관련된 세미나와 강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어린이 미디어교육을 위한 교재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자료 등이 필요하신분들께서는아래의 이메일로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방송문화진흥회는 마산, 전주, 목포, 울산, 대구, 춘천MBC에 시청자미디어센터를 개설하여, 지역의 시청자들이 미디어교육 등의 교육을 수강하고 제작을 체험하실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디어교육의 경험이 많은 강사들이 상주하고 있으니 지역에 계신 학부모님들께서는 방문하셔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글을 쓸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께 편린과 같은도움이 라도 될 수 있었으면 하는바람으로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훈(myall03@bc.or.kr / 방송문화진흥회사업팀)
* 영국 방송통신위원회 Ofcom에서는 미디어리터러시 개념을 '다양한 맥락에서 커뮤니케이션에 접근하고 이해하며 창조할 수 있는 능력' 이라고 정의내렸다.

이명박 정부의 의료민영화추진을 무조건 반대한다

사람은 누구나 건강할 권리가 있으며 아픈 환자는 누구라도 치료받을 권리가 있다. 건강과 교육은 국민의 생활에 필수적이며 국가가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국민기본권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런 국민 기본권이 실종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명박 정부가 작년 촛불 저항에 밀려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의료민영화정책을 의료선진화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올해 안에 완결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지난 5월 기획재정부는 '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이라는 이름으로 교육, 방송통신, 콘텐츠 등 여러 서비스분야의 시장화 정책을 쏟아냈다. 보건복지가족부도 9개 항목으로 구성된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과제를 확정 발표한 것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의료기관에 자본의 출입을 허용하는 방법으로 영리병원 허용을 추진하며, 영리병원으로 전환하지 못하는 비영리병원에게는 의료채권을 발행하도록 허용하는 '의료채권법'을 이미 국회에 제출하여 놓았다. 영리병원은 비영리병원과 달리 병원 바깥으로 투자자에게 이윤배분을 하는 병원을 말한다. 영리병원의 합법적인 목적은 환자진료가 아니라 돈을 벌어 주주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이다. 지금도 가계에 부담이 되는 의료비가 더욱 올라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또한 병원이 의료서비스 이외에 경영과 관련된 분야를 병원경영지원회사로 묶어내고 비영리병원 간의 합병을 허용하겠다고 한다. 그러면 삼성의료원과 같은 대형재벌병원이 종합병원과 병원, 의원을 수직적으로 체인화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런 재벌대형병원과 민간보험사들 간에 연계가 이루어져 민간보험사들이 활성화된다면, 이제 건강보험과 경

쟁하거나 대체하는 단계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민간보험사들이 수년 동안 요구하고 있는 것이 개인질병 정보이며,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질병정보를 보험사에게 넘겨달라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뿐이 아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건강서비스 시장을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하였다. 즉 그동안 국가가 담당해오던 보건사업, 건강서비스분야를 확대하기보다는 새로운 시장으로 개척하여 건강관리조차 돈으로 사고파는 사업으로 만들려는 것이다.

윤준현 기획재정부장관은 영리병원을 만들면 병원 간 경쟁을 하게 되어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고, 의료비는 내려갈 것이라고 주장한다. 과연 그럴까? 미국에서 진행된 병원 평가결과에서도 20위 안에는 모두 비영리병원이나 주립병원이 차지하였고 영리병원은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았다. 우리 정부산하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추진한 연구결과에서도 의료의 질, 효과성, 효율성, 접근성, 형평성 등 '좋은 의료'의 지표에서 모두 영리병원이 우수하다는 결론을 내지 못하였다. 영리병원은 국민 의료비만 늘릴 뿐 국민에게 좋은 병원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영리병원을 왜 허용해야 하는지 국민들은 이해하기 어렵다.

기획재정부가 밝힌 대로 영리병원을 통해 경쟁력을 갖춘 의료서비스가 새로운 성장 동력이자,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산업'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조차 전혀 기대하기 어렵다. 영리병원은 돈을 벌기 위해 만들어진 병원이므로 이윤을 더 올리려고 할 것이 분명하다. 영리병원이 수익을 더욱 올리는 방법은 두 가지뿐일 것이다. 하나는 병원 운영비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인건비를 줄이던가 아니면, 수입을 늘리기 위해 환자에 대한 과잉 진료와 부당 비용 청구를 더욱 늘리는 것이다. 따라서 의료민영화가 국민들에게 미칠 영향은 정말 심각하다. 무엇보다 의료비가 폭등하여 우리 국민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될 것이다. 의료서비스의 질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면서 비용만 올라갈 것이다. 비용 때문에 지금보다 더 경제적 능력에 따라 의료이용이 어려운 국민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건강불평등, 의료이용의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게 될 것이다. 여기에 건강할 때는 '건강관리회사'가, 병들었을 때는 '병원' 이나의 몸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의료민영화정책은 우리 몸에 대한 자본의 지배력이 확장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의 입장에서서는 건강할 권리 를 더 이상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명박 정부의 의료민영화정책을 무조건 반대하는 이유이다.

대안은 있다. 지금 경제 위기시기에 정부가 할 일은 의료비를 줄여주고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다. 건강보험 보장을 현재 60%수준에서 90%까지 높이고 의료의 공공성을 확대하여 가난한 환자들도 건강을 회복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시장의 확대가 아닌 공공의 확대만이 국민 모두를 살리고 경제도 살릴 수 있는 길임을 이명박 정부가 깨달아야 할 것이다. 참고로 <http://bogun1004.net>는 의료민영화 보장성강화 등내용을 쉽게 볼 수 있는 곳이다.

조경애(choka321@hanmail.net)
(의료민영화저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 건강세상네트워크대표www.konkang21.or.kr)

Q&A
상담실

지적장애아도 왕따 당하지 않고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Q 초등6학년에 다니는 우리 아이반에 장애아가 있다. 그런데 반 아이들이 무의식적으로 따돌림을 하고 그 아이의 행동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보며 놀렸다고 한다. 지적장애가 약간 있는 아이는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있다. 3월부터 이런 일이 있었다. 담임 선생님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신 듯 보이고 그 사실이 이제야 밝혀지는 바람에 학부모를 소집하여 학교에 다녀왔다. 담임 선생님은 이 사실이 알려지는 걸 막으려는 듯 자꾸 동영상을 지워 달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누가 유보했는지 밝혀내겠다고 협박성 발언만 했다. 담임 선생님도 많이 당황해하는 듯 보였다. 학기 초에 그 아이를 특수학급으로 옮기려 했는데 부모님이 원하지 않아 담임 선생님과 몇 차례 마찰을 겪은 일이 있다고 한다. 이 일을 알게 된 아이 부모님은 별다른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러나 우리 몇 학부모는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가지 않고 반 아이들을 교육할 기회로 삼고 싶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

A 자신의 아이가 피해자가 아님에도 문제

제기하는 학부모님의 모습에 경의를 표합니다. 가해아이 측의 학부모들은 보통, 문제를 드러내기보다는 덮으려 하거나 아이의 잘못을 축소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그런 행동은 잘못이라기보다는 장난이었고, 더 나아가서는 불가피했다고 주장하는데 급급한데 말이지요.

우선,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학부모님들과 만나 의견을 정리하시고 담임 선생님과 상담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담임 선생님의 지난 행동에 대해 힐책하는 것보다는 학부모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것 같고 담임교사와 학부모들이 함께 협력해야 할 일인 것 같아 상담을 요청했음을 전하십시오. 학교 내에 전문상담교사가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외부강사를 초빙하는 방법도 고려하자고 제안하십시오. 한두 명의 아이가 한 일이 아니므로 집단상담 방식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동한 아이들은 상담과 선도를 통해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과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강요에 의해서 사과를 하게 된다면 어른들의 눈길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은밀히 그 아이를 괴롭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음속 깊이 우러나오는 반성과 사과만이 재발을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가해자들이 중학생은 아니지만 초등학교 6학년이면 이제 막 사춘기로 접어드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사과의 방식 등도 섬세하고 신중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공개사과 방식이 어떤 상황에서도 모두 좋은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수치심과 반발심을 만들기도 하여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서면사과 방식도 있을 수 있고 담임교사나 상담교사와 양측 아이들이 모여서 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의 심리상태나 반분위기, 교사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해아이들에 대한 선도 교육도 필요합니다. 다만 장애아에 대한 어떤 대책도 함께 모색되어야 하겠습니다. 학기 초에 담임교사가 특수학급으로 옮길 것을 권유했는데 그 부모님이 반대해서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했는데요. 이 기회에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일반적인 차원에서 배려하는



것 이외에도 더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한 학생이라면 특수학급으로 옮기는 것이 진정으로 그 아이가 잘 성장할 수 있는 것임을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담임교사의 권유가 실패한 적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다룰 문제이고요, 또한 가해 아이들이 진심어린 사과 등이 선행되어서 피해자의 상처가 어느 정도 치유된 후에 거론할 문제라고 봅니다. 모쪼록 일이 잘 해결되어 피해학생의 상처도 조금이나마 치유되고 가해학생들도 인격적 성숙을 이루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공 : 학부모상담실

생활글

아버지가 그리운 날

집안 가득 햇살만큼이나 매실향이 그득하다.

결혼하고 처음 담가보는 매실, 처음이라 하기엔 결혼 14년 차 만큼 세월의 연륜이 쌓였지만 월급쟁이 마누라의 서울살림이 내 마음을 들었다 놓았다 하며 여유를 내주지 않았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 장을 보러 집 앞 마트로 향하였다. 입구에서부터 초록망에 알콩달콩 초록매실이 아무지게 담겨 자기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다. 고녀석 참..... 마트 안은 나처럼 저녁 장을 보러 나온 엄마들과 달콤한 과자 앞에서 조잘대는 학생들, 반짝세일이라며 두부 300원을 외쳐대는 점원까지 그야말로 와글와글, 누군가의 식탁을 수놓기 위해 서로의 진열대에 최고의 몸매를 뽐내며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는 야채와 탐스런 과일들도 한뿔 거든다. 필요한 잔거리들 장만하고 나서 계산대로 다가설 즈음 갑자기 뭉뚱하고 달착지근한 향에 코를 들썩이며 나도 모르게 이끌려 가보니 '매실'이다.

여기저기 끌려 조금 흐물렁해보이는 종이박스에 절반 이상이 노랗게 변해버린 매실이 서글서글 담겨있

다. 비록 남들이 알아주는 최고의 상품은 아닐지라도 향기만큼은 최고급이었다. 매실처럼 사람도 사람냄새 짙하게 나는 사람이 좋다고 생각할 즈음 어느새 점원이 다가와 다들 모르고 초록이만 찾는데 원래 이런 놈을 담가야 훨씬 맛이 좋단다. 진담이든 농담이든 이미 서글서글한 이 녀석에게 마음이 뻗겨 나는 담기로 했다.

집으로 오는 길에 여름이면 고생하는 큰애 배앓이도 벌써 다 나은 것 같고 비 오는 날 이웃집 엄마 불러 매실차 마시며 내가 담근 거라고 스리슬쩍 자랑하는 모습도 떠올려 본다.

담아온 매실을 깨끗이 씻어 설탕 세 포대를 켜켜이 매실과 함께 담아 초파리가 꼬이지 않게 뚜껑을 꼭 닫았다. 10일 후 가라앉아 녹지 않는 설탕들을 위해 다시 한 번 힘차게 저어준다. 팔이 아플 만큼 설탕이 바닥에 엉겨 잘 떨어지지 않는다. 앞으로도 가끔 저어주어야 하는데..... 하지만 뚜껑을 열 때마다 풍기는 매실향은 진통제가 따로 없다. 매실청은 6개월이 지나야 사람 몸에 좋은 포도당 성분으로 바뀐다. 흔히 좋은 사람을 일컬어 '진국'이라던가 '찐한 막걸리'

'구수한 된장국' 같은 표현을 쓰는데 매실도 자기 몸의 수분을 다 빼서 좋은 양분으로 만든다니 좋은 사람이 곁에 있는 것처럼 마음이 푸근하다.

생전의 아버지는 인근 지역까지 소문난 수준급 노래 실력에 사람 좋아하시고, 특히 약주를 좋아하셨다. 많이 드시지는 않았지만 식사하실 때 꼭 반주로 한두잔씩은 기분 좋게 하셔서 우리 집엔 늘 집에서 직접 담근 술들이 장롱 위에 오בות이 자리 잡고 앉아 있었다. 동네 분들 가끔 오셔서 자식사랑 안주 삼아 한잔 두잔 비워갈 때 오늘은 술이 쓰다며 애꿎은 술 탕만 하시던 아버지, 우리 큰딸 사윗감 왔을 땐 넘기기도 아까운 귀한 술을 내시며 그렇게도 좋아라 취하지도 않으신다하신 것이 그렇그렁 어제만 같다.

매실청이다 되면 매실만 따로 내어 그 속에 정성스레 술을 부어볼 생각이다. 이젠 함께할 수 없는 저 세상의 아버지께 먼저 자랑도 하고 싶고, 내 첫 작품인 단내 나는 매실주를 드시며 노래 한 곡조 뽑으셨을 아버지가 못내 그립다.

김자애(상담실 선생님)

사설

더 이상 민주주의를 위협하지 말라!

최근 이명박 정권의 밀어붙이기식 통치에 많은 국민들은 답답함을 넘어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다. 사회 곳곳에서 급증하고 있는 공권력남용과 정보 사찰, 마구잡이 기소와 같은 ‘파시즘 경향’은 그동안 온 국민이 수십 년간 피땀으로 기꺼워온 민주주의를 위협할 뿐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미래조차 어둡게 하고 있다.

현 정권은 인수위시절부터 교육의 시장화, 자율화정책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으며 이는 물신주의와 골수 시장 자율 신봉론에 뿌리를 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영어몰입교육, 일제고사, 학교자율화, 자율형사립고와 최근 무서운 속도로 추진하고 있는 미래형교육과정은 글로벌인재양성을 앞세운 경쟁교육 강화를 통해 교육을 시장화하고자하는 정책일 따름인 것이다.

지난 7월 9일 전국의 학부모들이 세종문화회관 앞에 모였다. 기록적인 폭우에도 불구하고 자율형사립고가 귀족학교와 서민학교로 학교를 서열화하여 국민들을 분열시킬 것을 걱정한 학부모들이 이를 막아보고자 모인 것이다. 기자회견 후 의견서를 교육과학

기술부에 전달하고자 했다. 그러나 기자회견 때부터 불법시위, 연행운운하며 기자회견을 훼방 놓더니 이미 약속된 담당 공무원과의 약속조차도 전경들로 막고 방해하였다. 더욱 놀라운 것은 단체대표와 담당자간의 면담자리에까지 경찰이 배석하여 빨리 끝낼 것을 종용하였다고 한다. 종용하는 경찰과 가만히 있는 담당공무원 이 기막힌 현실 앞에 우리는 다시 한 번 우리교육의 위기, 민주주의의 위기를 체감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8월 말까지 확정짓겠다고 추진하고 있는 미래형교육과정은 철저하게 짜고 치는 고스톱이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이다. 20년 세월 속에 학부모들과 애환을 같이 해온 우리화는 물론 정부에 비판적인 학부모단체는 철저히 배제한 채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학부모단체와 교사들만의 토론회를 하고 있다.

자칫 고등학교가 국·영·수만을 가르치는 학원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은 교육과정을 논의하면서 반대 여론 수렴 없이 토론회 몇 번 했으니 됐지 않느냐는 식으로 밀어붙이는 것이다.

너무 과거로 되돌아간 현실에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교육운동이 단순한 교육의 공공성강화 차원이 아닌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전면적이고, 온몸을 던지는 파누물 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한편 죽창은카녕 피켓조차 들지 않은 학부모들을 전경들로 에워싸고 손에 들고 있는 의견서조차 두려워하는 현 정권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학부모들은 자식을 두고 절대 물러서지도 타협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국민을 언제까지 전경으로 막을 수 있다고 보는가? 또 언제까지 국민들이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정책들을 앉아서 봐줄 거라고 생각하는가? 사교육비 늘리는 정책만 하면서 사교육비 줄 거라고 우기면 그것을 믿을 거라고 믿는가? 국민들은 절대 바보가 아니다.

이명박 정권이 역사 앞에 단죄되지 않는 길은 지금이라도 국민의, 학부모의 소리에 귀기울여야 할 것이다. 왜 반대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듣고 수용하라. 그러기 위해서 지금 당장 국민과 소통하라!

타조알 선생의 교실 풍경

자습시간 버티기

본 만화는 <타조알 선생의 교실 풍경> 중 ‘궁금한 것 질문하세요!’를 실은 것입니다. <타조알 선생의 교실 풍경>은 봄·여름·가을·겨울로 나뉘어 1년 동안 학생들과 부딪치며 발생하는 상황을 만화로 옮긴 것 입니다. 저자의 허락하에 1년 동안 본자에 연재합니다.

<타조알 선생의 교실풍경>
지은이 _ 이성수
출판사 _ 나라말
가격 _ 9,000원



한 아이가 책을 보며 내내 꾸벅꾸벅 졸더니, 자리에 앉은 지 한 시간. 기어코 자는 건지. 자는 아이 옆으로 바보-웃음이.

발행처 사단법인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발행인** 장은숙
편집위원 송환웅 오명실 이희정 임영희 장은숙 전은자 한유나
주소 (우)100-110 서울시 종로구 교남동 73번지(2층)
전화 02-393-8900 **전송** 02-393-9110
상당실 02-393-8980
누리집 www.hakbumo.or.kr **한글주소** 참교육학부모회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 장은숙 수석부회장 송환웅 부회장 김석순 최주영 감사 임영희 서경자 정복순 상당실장 박부희 정책위원장은윤숙자 교육자치위원장은전은자 조직위원장 최주영 언론정보출판위원장은송환웅 상근자 심정숙 원소영 김사미		
서울지부	02)3491-5235	지부장 최정화
	남부지회 02)588-8980	지회장 박현미
	동북부지회 02)3491-5235	지회장 최정화
인천지부	032)438-3970	지부장 김은중
경기지부	031)236-0002	지부장 서애란
	고양지회 031)905-5893	지회장 이현숙
	구리남양주시회 031)568-2311	지회장 차경희
	성남지회 031)716-8583	지회장 김윤주
	양주지회 031)864-3958	지회장 정영미
	용인지회 031)281-7696	지회장 이정희
	의정부지회 031)876-2816	지회장 오명실
	파주지회 031)955-2623	지회장 김부정
	수원지회 010-9195-2075	지회장 정연훈
	김포지회 019-622-5333	지회장 노계향
강원지부(주)	원주지회 033)763-6423	지회장 윤금옥
충남지부	041)576-6677	지부장 김명숙
	천안지회 041)576-6677	지회장 박갑주
	홍성지회 011-420-3979	지회장 조성미
	서산태안지회 010-9599-0658	지회장 김한중
광주지부	062)228-6998	지부장 최은순
전북지부	062-535-0191	지부장 권승길
	전주지회 063)231-9770	지회장 임혜순
	정읍지회 063)535-0191	지회장 장세희
전남지부	061)334-9271	지부장 오승주
	목포지회 061)284-6575	지회장 김승진
	화순지회 061)375-9109	지회장 문은아
	나주지회 016)9882-2870	지회장 김정숙
	장흥지회 011-631-1074	지회장 신성호
	영암지회 010-4618-0962	지회장 최옥주
	광양지회 019-622-5333	위원장 이화정
대구지부	053)751-4070	지부장 양승희
부산지부	051)556-1799	지부장 채승영
울산지부	052)68-0987	지부장 고영호
경북지부	017-511-9143	지부장 신현자
	안동지회 010-2971-0780	지회장 김승균
	포항지회 054)242-9143	지회장 신현자
	칠곡지회	지회장
	구미지회 010-2366-1365	지회장 김성희
	상주지회 019-289-0839	지회장 김영선
	의성지회 010-8422-0923	지회장 임창대
	경주지회 010-7580-8796	지회장 신경진
경남지부	055)282-1950	지부장 장귀령
	진주지회 055)748-1352	지회장 김미선
	거제지회 055)638-4130	지회장 최양희
	마창진지회 055)282-1950	지회장 배경희
	사천지회 010-2225-8384	지회장 박영옥
	김해지회 055)321-8929	배주임
	거창지회 011-9046-3463	지회장 서미경
	밀양지회 010-9955-0148	지회장 하정훈

자문위원회 ● 이규원(자문위원장·전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강순원(한신대 교수)/김지원(법률사무소 청지 변호사)/권장희(홈 미디어교육센터 소장)/김기태(호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김민남(경북대 교육학과 교수)/김영삼(성동글로벌경영고등학교 교사)/김용일(한국해양대 교직과정 교수)/김이경(한국교육개발원 교원정책연구실 실장)/김홍렬(선진회계법인 공인회계사)/김희은(여성사회교육원 원장)/도종환(사인)/민덕기(화산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박수선(평화회를 만드는 여성회 갈등해결센터 소장)/배옥병(학교급식 전국네트워크 상임대표)/백성빈(강릉야산병원 정신과 교수)/송대현(전교조 경북지부 상담교사/송병준(변호사)/이재분(한국교육개발원 평생교육센터 소장/임재택(부산대 유아교육과 교수)/전양숙(새들 심리 상담 소장/정종택(상명대학교 석좌교수)/조성희(법무법인창조 변호사)/최문순(국회의원)/최현섭(강원대학교 총장)

참교육학부모회 활동가의 역량강화!
학부모운동의 발전! 교육문제에 대한 인식의 제고!

호! 학부모 아카데미

일시 | 2009년 5월 21~10월 29일 격주 목요일 13시~15시30분

장소 | 안병무 홀 (서대문역 1번출구 신한은행 옆 골목으로 직진 30M 후 왼쪽)

회차	일정	소주제	키워드	강사진
제1부 공교육의 역사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것인가?				
1	5/21(목) 13:00~15:30	근대 공교육의 형성과 발달과정 탐색	유럽의 공교육운동/미국의 보통교육운동/교육권, 공공재 vs. 사유재/무상의무교육제도/교육의 기회균등	이윤미 (홍익대)
2	6/04(목) 13:00~15:30	시장 우위의 사회와 교육 계급(층)화의 경향성	국가 그리고 시장/계층 및 인간 교육불평등/공교육과 사교육/사다리 건너차기	성열관 (경희대)
3	6/18(목) 13:00~15:30	한국교육의 현황과 문제의 본질	교육 계급(층)화의 가속화/계층대응적 학교서열화, 학업성취도 격차, 사교육비 격차 등/계층대응적 대학서열화	성기선 (가톨릭대)
제2부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4	7/02(목) 11:00~13:30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도입 경위와 목적	'문민정부', 교육개혁위원회, 5.31교육개혁안/ 공교육재정 감축/교육의 사사화 전략: 공교육 시장화, 학교민영화(학교 선택 전략	김응일 (한국해양대)
5	7/02(목) 14:30~17:00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의 전개과정과 현황	'문민정부'에서 '이명박 정부' 까지/정책수입 → 무비판적 계승 → 방향 선회 좌절 → 시장만능론의 전연화	김응일 (한국해양대)
6	7/16(목) 13:00~15:30	예정된 실패 : 영국과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영국의 보수당 정부와 노동당 정부/미국의 NCLB 정책과 오바마 정부의 방향 선회 전환	김응일 (한국해양대)
제3부 교육 본연의 가치, 지속가능한 사회 건설, 그리고 실천과제				
7	9/03(목) 13:00~15:30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전면화에 대한 반대전선의 공고화(소극적 대안)	4.15 학교자율화 조치의 본질과 대응전략/대학자율화 조치의 본질과 방어전선 구축의 과제 등등	한만중 (남서울대)
8	9/17(목) 13:00~15:30	교육정책 대안 마련을 위한 상상력 기르기: 핀란드와 스웨덴의 교육	핀란드 교육의 성공에 비추어 본 한국 교육개혁의 비전과 전략/공교육의 방향, 철학, 원칙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어떻게 가능한가	안승문 (전 서울시교육위원)
9	10/15(목) 13:00~15:30	세계적인 수준의 지식교육과 인간교육(적극적 대안)	우리 모두의 자녀를 위한 교육 본연의 가치/ 지속가능한 사회, 교육의 공공성과 민주화를 위한 실천전략	김응일 (한국해양대)
10	10/29(목) 13:00~15:30	교육과정과 평가는 어떻게 가져가야하나?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일제고사파괴/ 학업성취도 및 수능 성적 공개/ 대안 제시	박도순 (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
제4부 절망의 시대, 학부모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11	11/13(금) 15:00~	교육주체로서 학부모운동	- 발제1 : 소비자주권론(수오자 중심 교육론) - 발제2 : 교육주체론과 교육민주화 운동	한만중 (남서울대) 강순원 (한신대)
12	11/14(토) ~13:00	학부모운동에 대한 점검과 새로운 과제 탐색참학 아카데미 수료식	- 교육시민사회단체 현황/ 5년후의 참학 그려보기/ 참학 20주년과 미래과제/ 우리가 만드는 학부모운동	참학

▶ 대 상

참교육학부모회 활동가 및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30명 이내

▶ 수 강 료

회원 7만원, 비회원 10만원, 개별수강 1회 만원

▶ 입금계좌

신한은행 100-025-183525 참교육학부모회

▶ 수업운영

90분강의 후 60분 토론으로 진행
총 12강중 10강이상 수료한 사람에게 수료증 발급
11-12강(11월 13~14일)은 1박2일 진행(8월은 방학)

▶ 수강신청

신청서 다운로드 후 참교육학부모회 메일 발송

▶ 문 의

조직위원회(위원장 최주영 011.9005.2426)
02.393.8900

사단법인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http://www.hakbumo.or.kr> | hakbumo@chol.com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공부 중압감을 한순간에 날려 버리는 책



사교육과 입시에 찌든 청소년과 학부모에게 주는 희망의 교육론

공부 잘하는 것도 행복해지는 한 가지 방법이지만, 행복의 유일한 길은 절대 아니다.
공부를 잘하지 못해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처칠, 생텍쥐베리, 톨스토이 등 낙방생과 아인슈타인, 다윈, 피카소, 안데르센 등 공부 못한 사람들,
에디슨, 카네기, 링컨, 노벨 등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고교 시절의 오바마 대통령도 이를 증명한다.
역대 미국 대통령의 75%는 학급 석차가 중간 이하였다.
미국 자영업 부자의 80%는 대학을 나오지도 못했다.

부자들 중에는 오히려 공부 못한 사람들이 더 많다.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누구나 행복해질 수 있으며
특목고 → 명문대가 아니어도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



전화 : 02-2201-2350 팩스 : 02-2201-2326

행복
포럼